

제66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해설

정답표

1	2	3	4	5
②	②	③	④	①
6	7	8	9	10
⑤	⑤	⑤	③	⑤
11	12	13	14	15
②	④	③	②	④
16	17	18	19	20
③	①	②	③	⑤
21	22	23	24	25
③	④	③	②	①
26	27	28	29	30
②	④	④	①	⑤
31	32	33	34	35
②	①	②	①	①
36	37	38	39	40
③	③	②	⑤	②
41	42	43	44	45
③	④	④	③	③
46	47	48	49	50
①	④	①	②	⑤

<1번 오답 해설>

*반량전은 중국 진(秦)나라 때 사용된 화폐[동화(銅貨)]이다. '반량(半兩)'의 글씨가 새겨져 있다. 또 명도전은 중국 전국 시대에 사용된 화폐이다(연나라, 제나라). 손칼 모양의 청동 화폐로 '명(明)'자가 장식되어 있어 '명도전(明刀錢)'이라 부른다.

④ 빗살무늬 토기를 만들어 식량을 저장한 것은 신석기 시대의 일이다.

⑤ 가락바퀴**와 뼈바늘을 이용하여 옷을 만들었던 것도 신석기 시대의 일이다.

**가락바퀴: 실을 감는 도구인 '가락'을 끼워 사용했기 때문에 가락바퀴라고 부르며, 가락의 다른 이름인 방추를 붙여 '방추차'라고도 한다. 이로써 원시적 수공업이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청동기 시대까지 사용).

01 - 구석기 시대의 생활 모습

1. (가) 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은?

[1점]



- ① 반달 돌칼로 벼를 수확하였다.
- ② 주로 동굴이나 막집에서 살았다.
- ③ 반량전, 명도전 등 화폐를 사용하였다.
- ④ 빗살무늬 토기를 만들어 식량을 저장하였다.
- ⑤ 가락바퀴와 뼈바늘을 이용하여 옷을 만들었다.

정답> ②

'공주 석장리 (가) 축제'라는 제목 아래 '내가 만든 주먹도끼 구경할 사람?'이라는 질문이 나와 있다(해시 태그로 '#공주_석장리_유적'과 '#뎨석기_제작_체험'). 이어 댓글에 '주먹도끼가 뭐냐?'는 물음과 '(가) 시대의 대표적인 유물이야. 동물을 사냥하거나 가죽을 벗기는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했다'라는 답변이 차례로 제시되어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가)'는 구석기 시대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 공주 석장리 유적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구석기 시대 유적 중 하나이다.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주로 동굴이나 (강가의) 막집에서 살았다.

오답 해설>

① 반달 돌칼로 벼를 수확한 것은 청동기 시대의 일이다. 반달 돌칼은 생김새가 대체로 한쪽이 곧고 다른 한쪽이 둥근 반달처럼 생겼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곡식의 낱알을 거두어들이는 데 [이삭을 따는 데] 쓰인 청동기 시대의 농기구[수확 도구]이다.

③ 반량전*, 명도전* 등 (중국) 화폐를 사용한 것은 초기 철기 시대의 일이다.

02 - 초기 국가, 옥저

2.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호의 수는 5천인데 대군왕은 없으며 읍락에는 각각 대를 잇는 우두머리가 있다. …… 여러 읍락의 거수(渠帥)들은 스스로를 삼로라 일컬었다. …… 장사를 지낼 때에는 큰 나무 곁을 만든다. 길이가 10여 장이나 되며 한쪽을 열어 놓아 문을 만든다. 사람이 죽으면 임시로 매장한다. 겨우 시체가 덮일 만큼 묻었다가 가족과 살이 다 썩은 다음에 뼈만 추려 곁 속에 넣는다. 온 집 식구를 하나의 곁 속에 넣어 두는데, 죽은 사람의 숫자만큼 나무를 깎아 생전의 모습과 같이 만들었다.

-「삼국지」 동이전-

- ① 신성 지역인 소도가 존재하였다.
- ② 혼인 풍습으로 민며느리제가 있었다.
- ③ 범금 8조를 통해 사회 질서를 유지하였다.
- ④ 여러 가(加)들이 각각 사출도를 주관하였다.
- ⑤ 정사암에 모여 국가의 중대사를 논의하였다.

정답> ②

'호의 수는 5천인데 대군왕은 없으며 읍락에는 각각 대를 잇는 우두머리가 있다. …… 여러 읍락의 거수(渠帥)들은 스스로를 삼로라 일컬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장사를 지낼 때에는 큰 나무 곁*을 만든다. 길이가 10여 장이나 되며 한쪽을 열어 놓아 문을 만든다. 사람이 죽으면 임시로 매장한다. 겨우 시체가 덮일 만큼 묻었다가 가족과 살이 다 썩은 다음에 뼈만 추려 곁 속에 넣는다. 온 집 식구를 하나의 곁 속에 넣어 두는데, 죽은 사람의 숫자만큼 나무를 깎아 생전의 모습과 같이 만들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군장으로(읍군), 삼로 등이 있었고(동예도 마찬가지로), 주어진 자료와 같이 골장제(가족공동묘제) 풍습을 갖고 있던 나라는 초기 국가, 옥저이다.

*곁(槨): 널[관]을 넣기 위해 따로 짜 맞춘 매장 시설이다. 일반적으로 나무로 만들어진 것을 말한다.

옥저에는 혼인 풍속으로 민며느리제가 있었다.

오답 해설>

① 신성 지역인 소도(蘇塗)**가 존재한 국가는 삼한이다.
**소도(蘇塗): 『삼국지』 동이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귀신을 믿기 때문에 국읍마다 한 사람을 세워 천신의 제사를 주관하게 하니 천군이라고 하였다. 또 나라마다 별읍이 있으니 소도라 하였다. 그곳에서는 큰 나무를 세우고 방울과 북을 매달아 놓고 귀신을 섬겼다. 그 안으로 도망쳐 온 사람들은 모두 돌려보내지 않았다."

③ 범금 8조를 통해 사회 질서를 유지한 나라는 고조선이다.

④ 여러 가(加)들이 각각 사출도(四出道)***를 주관한 나라는 초기 국가, 부여이다.

***사출도(四出道): 부여의 지방 관할 구역을 가리킨다. 부여는 수도를 중심으로 동서남북 방위에 따라 지방을 4개의 구역으로 나누었다. 중앙에는 가장 강력한 부족이 있고, 사방에는 그 지방에서 우세한 부족이 다스렸다. 부족장인 제가(諸加)가 관할하였는데 큰 부족으로는 가축의 이름을 딴 마가(馬加)·우가(牛加)·저가(猪加)·구가(狗加) 등이 있었다. 처음에 제가는 부족의 대표적인 역할만 했으나 점차 귀족화되며 국가의 지배층이 되었다. 세력의 크기에 따라 수천 가(家) 또는 수백 가의 호(戶)를 지배하였다.

⑤ 정사암에 모여 국가의 중대사, 요컨대 재상 선출과 관련 사안을 논의한 나라는 백제이다(천정대와 호암사지에서 정사암 회의 열림).

03 - 신라의 문화유산

3. (가) 국가의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2점]

[2점]

천마총 발굴 50주년 특별전이 개최됩니다. 천마총은 (가)의 대표적인 돌무지덧널무덤 중 하나로 발굴 당시 많은 유물이 출토되어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천마도의 실물이 9년 만에 세상에 공개됩니다.



정답> ②

'천마총 발굴 50주년 특별전이 개최됩니다. 천마총은 (가)의 대표적인 돌무지덧널무덤 중 하나로 발굴 당시 많은 유물이 출토되어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천마도의 실물이 9년 만에 세상에 공개됩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천마총 장미 천마도는 신라의 문화유산이다. 천마총 내부의 고분의 동쪽 중앙에서 2장의 장미[말다래] 천마도가 발견되었다.

신라의 금관이다. 원형의 대륜 전면에는 세 줄기의 출(出)자형 입식이, 후면에는 두 줄기의 사슴뿔 모양 장식이 세워져 있다. 곡옥*과 영락**으로 금관 전체가 장식되어 있다. 지금까지 현존하는 신라 금관은 모두 6점이다.

*곡옥(曲玉): 옥을 반달(초승달) 모양으로 다듬어 끈에 꿰어서 장식용으로 쓰던 구슬

**영락(瑩珞): 보석의 일종으로, 얇은 금붙이[쇠붙이] 장식(319~412). 영락은 우리나라 최초의 연호이기도 하다.

오답 해설>

① 고려의 청동 은입사 포류수금문 정병***이다. 고려 시대 청동 정병의 전형적인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고려) 자기가 아니라 은입사 기술이 적용된 금속 공예품이다.

***정병(淨瓶): 본래 깨끗한 물을 담은 수병[물병]으로 승려의 필수품인 18물(物)의 하나이던 것이 차츰 부처님 앞에 정수를 바치는 공양구(供養具)로서 그 용도의 폭이 넓어졌다.

② 고구려의 금동 연가 7년명 여래 입상이다(539, 고구려 안원왕 9). 국보 제119호인 이 불상은 고구려의 승려들이 만들어 유포한 천불(天佛) 중의 하나로, 경상남도 의령에서 출토되었다. 연가(延嘉) 7년이라는 명문이 새겨져 있어 제작 연대를 추정할 수 있었다.

<6쪽 11번 아래 추가 해설>

04 - 고구려 광개토 대왕

4. 밑줄 그은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기해년에 백제가 맹세를 어기고 왜와 화통하였다. 왕이 순행하여 평양으로 내려갔는데, 신라에서 사신을 보내어 아뢰기를, "왜인이 국경에 가득 차 성지(城池)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 귀부하여 명을 받고자 합니다."라고 하였다.
- 경자년에 왕이 보병과 기병 5만 명을 보내서 신라를 구원하게 하였다. 군대가 남거성을 거쳐 신라성에 이르니 왜적이 많았다. 군대가 도착하자 왜적이 퇴각하였다.

- ① 대가야를 병합하였다.
- ② 평양으로 도움을 옮겼다.
- ③ 22담로에 왕족을 파견하였다.
- ④ 영락이라는 연호를 사용하였다.
- ⑤ 낙랑군을 몰아내고 영토를 확장하였다.

정답> ④

위 사료에 '기해년에 백제가 맹세를 어기고 왜와 화통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왕이 순행하여 평양으로 내려갔는데, 신라에서 사신을 보내어 아뢰기를, 왜인이 국경에 가득 차 성지(城池)*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 귀부하여 명을 받고자 합니다'라고 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주어진 사료 속 기해년은 고구려 영락 9년인 399년을 가리킨다. 신라의 내물마립간(재위 356-402, 제17대)이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재위 391-412, 제19대)에게 사신을 보내 도움을 청한 내용이다. 아래 사료에는 '경자년에 왕이 보병과 기병 5만 명을 보내서 신라를 구원하게 하였다. 군대가 남거성을 거쳐 신라성에 이르니 왜적이 많았다. 군대가 도착하자 왜적이 퇴각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기해년 이듬해인 경자년, 즉 고구려 영락 10년인 400년에 있었던 일이다.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이 군대를 보내 신라에 침입한 왜군을 격퇴한 내용이다.

*성지(城池): 성과 그 주위에 파 놓은 못(해자)

광개토 대왕은 즉위 직후부터 영락(永樂)이라는 연호**를 사용하였다(391~412). 영락은 우리나라 최초의 연호이기도 하다.

**연호(年號)란 중국에서 비롯된 군주 국가의 기년법(紀年法)(과거의 어떤 해를 기점으로 해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군주의 치세(治世)에 붙이는 칭호이다. 원호(元號), 다년호(大年號)라고도 하며, 중국 한(漢) 무제(武帝) 때의 건원(建元)이 최초의 연호이다. 원칙적으로 연호는 황제만이 사용하고, 제후왕은 독자적 연호를 사용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연호가 있다 함은 그 나라의 '독자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대가야를 병합한 왕은 신라의 진흥왕(재위 540-576, 제24대)이다(562, 진흥왕 23).
- ② 평양으로 도움을 옮긴 왕은 고구려의 장수왕(재위 413-491, 제20대)이다(427, 장수왕 15)(평양 천도).
- ③ 22담로에 왕족을 파견한 왕은 백제의 무령왕(재위 501-523, 제25대)이다(6세기 초 추정).
- ⑤ (한사군의 하나인) 낙랑군을 몰아내고 영토를 확장한 왕은 고구려의 미천왕(재위 300-331, 제15대)이다(313, 미천왕 313). 참고로 미천왕은 (압록강 하류 지역인) 서안평을 그 전인 311년(재위 12)에 정벌하였고, 314년(재위 15)에는 대방군까지 정벌하였다.

05 - 백제 무왕 대의 삼국의 상황

5. (가) 왕의 재위 시기 삼국의 상황으로 옳은 것은? [3점]

이 사진은 익산 미륵사지 서탑 출토 사리장엄구의 발견 당시 모습입니다. 삼국유사에는 (가)이/가 왕후인 신라 선화 공주의 발원으로 미륵사를 창건했다고 되어 있지만, 금제 사리봉영기에는 왕후가 백제 귀족 사택적덕의 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미륵사 창건 배경과 (가)의 아들인 의자왕의 친모가 누구인지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기도 하였습니다.



- ① 고구려 - 을지문덕이 살수에서 수의 대군을 격파하였다.
- ② 백제 - 고흥이 서기를 편찬하였다.
- ③ 백제 - 계백이 황산벌에서 군대를 이끌고 결사 항전하였다.
- ④ 신라 - 이사부가 우산국을 정복하였다.
- ⑤ 신라 - 사찬 시덕이 기벌포에서 당군에 승리하였다.

정답> ①

'이 사진은 익산 미륵사지 서탑 출토 사리 장엄구*의 발견 당시 모습입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삼국유사에는 (가)이/가 왕후인 신라 선화 공주의 발원으로 미륵사를 창건했다고 되어 있지만, 금제 사리 봉영기*에는 왕후가 백제 귀족 사택적덕의 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미륵사 창건 배경과 (가)의 아들인 의자왕의 친모가 누구인지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기도 하였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가)'는 백제의 제30대 왕인 무왕(재위 600-641)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백제의 익산 미륵사지 서탑은 무왕 40년인 639년에 조성되었다.

*사리 장엄구와 사리 봉영기: 사리 장엄구란 사리(舍利) 즉 '참된 불도 수행의 결과로 생긴다는 구슬 모양의 유골'을 보호하거나 장엄(엄숙하게 꾸밈)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한 용기를 말하고, 사리 봉안기란 사리를 봉안하는 내력을 적은 글을 말한다. 사리 봉안기에는 사리 공양을 위한 석탑의 조성 과정이나 사찰의 창건 배경도 기록되어 있다.

고구려의 명장 을지문덕(?~?)이 살수에서 수의 대군을 격파한 것은 고구려 영양왕 23년인 612년의 일이다(살수 대첩).

* 특정 시기를 중심으로 삼국의 역사를 서로 비교해서 살펴보는 문제 형식으로는 최초로 출제된 문제로 평가됩니다. 그만큼 난이도는 올라갈 수밖에 없지만 앞으로 이런 형식의 문제가 계속 출제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공부 방법의 일부 수정이 필요합니다(삼국과 남북국 시대의 역사를 연도별로 비교하는 방식으로 학습). 제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하고 좋은 출제 형식으로 봅니다.

오답 해설>

- ② 고흥(?~?)이 서기를 편찬한 것은 백제 근초고왕 30년인 375년의 일이다.
- ③ 계백(?~660)이 황산벌에서 군대를 이끌고 (김유신이 이끈 신라군에 맞서) 결사 항전한 것은 백제 의자왕 20년인 660년 7월의 일이다(황산벌 전투). <6쪽 11번 아래 추가 해설>

06 - 통일 신라의 경제 상황

6.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 ① 삼한통보와 해동통보를 발행하였어요.
- ② 특산품으로 솔빈부의 말이 유명하였어요.
- ③ 고구마, 감자 등의 구황 작물을 재배하였어요.
- ④ 특수 행정 구역인 소에서 여러 물품을 생산하였어요.
- ⑤ 조세 수취를 위해 3년마다 촌락 문서를 작성하였어요.

정답> ⑤

'지도는 이 국가의 교역로를 표시한 것입니다. 청해진을 설치하여 해상 교역을 활발하게 전개하였던 이 국가의 경제 상황에 대해 말해 볼까요?'라는 질문이 나와 있다. 해상왕 장보고(?~846)가 청해진을 설치하여 해적을 소탕하면서 해상 무역을 전개한 것은 9세기 초중반의 일이다[828(흥덕왕 3)~851(문성왕 13)]. 또 지도에 표시된 (적산) 법화원은 장보고가 당의 무령군 소장으로 있을 때 산둥 반도의 신라인 집단 거주지에 세운 절이다(823, 헌덕왕 15).

조세 수취를 위해 3년마다 촌락 문서를 작성한 것은 통일 신라 시대의 일이다. 지금의 충북 청주 부근인 서원경의 4개 촌을 대상으로 작성된 신라 촌락 문서는 노동력 동원과 세금 징수를 위해 작성되었다. 작성된 시기로는 755년설(경덕왕 14), 816년설(헌덕왕 8), 876년설(헌강왕 6) 등 여러 설이 있다.

오답 해설>

- ① 삼한통보와 해동통보가 발행된 것은 고려 숙종 7년인 1102년의 일이다.
- ② 특산품으로 솔빈부의 말이 유명한 국가는 발해이다(솔빈부는 발해의 지방 행정 구역 중 하나).
- ③ 고구마, 감자 등의 구황 작물을 재배한 것은 조선 후기의 일이다.
- ④ 특수 행정 구역인 소(所)에서 여러 물품을 생산한 국가는 고려이다(이른바 '소 수공업'). 특수 행정 구역으로 소 외에 향, 부곡도 있었으며[향, 부곡은 삼국 시대부터 있었다(유의)], 여기에 거주한 주민들은 차별을 받았다. 즉 향·부곡·소의 주민들은 양민이지만 일반 양민보다 하층 신분으로 여겨졌으며 일반 균현민에 비해 더 많은 세금 부담을 졌다. 또 다른 거주지로 이동하는 것도 금지되었다.

07 - 김현창의 난

7. (가), (나) 사이의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선덕왕이 죽었는데 아들이 없자, 여러 신하들이 회의를 한 후에 왕의 조카인 김주원을 옹립하고자 하였다. 주원의 집은 왕경에서 북쪽으로 20리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 마침 큰비가 와서 알천의 물이 넘쳐 주원이 건너 오지 못하였다. …… 여러 사람들의 뜻이 모아져 김경신이 왕위를 계승하도록 하였다.

- 「삼국사기」 -

(나) 나라 안의 모든 주군에서 공물과 부세를 보내지 않아, 창고가 텅텅 비어 나라 재정이 궁핍해졌다. 왕이 사신을 보내 독촉하니 곳곳에서 도적이 벌떼처럼 일어났다. 이때 원종과 애노 등이 사벌주에 근거하여 반란을 일으켰다.

- 「삼국사기」 -

- ① 계백료서를 읽는 관리
- ② 녹읍 폐지를 명하는 국왕
- ③ 성균관에서 공부하는 학생
- ④ 초조대장경을 조판하는 장인
- ⑤ 김현창의 난을 진압하는 군인

정답> ⑤

(가)에 '선덕왕이 죽었는데 아들이 없자, 여러 신하들이 회의를 한 후에 왕의 조카인 김주원을 옹립하고자 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주원의 집은 왕경에서 북쪽으로 20리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 마침 큰비가 와서 알천의 물이 넘쳐 주원이 건너 오지 못하였다. …… 여러 사람들의 뜻이 모아져 김경신이 왕위를 계승하도록 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김주원(?~?)은 신라 하대의 진골 귀족으로 태종 무열왕의 6대손이다. 김경신(?~798)은 내물마립간의 12대손으로, 신라의 제38대 왕인 원성왕(재위 785-798)이다. 역시 진골 귀족 출신이다. 김주원이 아니라 김경신이 왕이 된 과정을 설명한 사료이다. 참고로 '알천'은 오늘날 경주 남산 서북 일대의 한 지명이다.

(나)에는 '나라 안의 모든 주군에서 공물과 부세를 보내지 않아, 창고가 텅텅 비어 나라 재정이 궁핍해졌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왕이 사신을 보내 독촉하니 곳곳에서 도적이 벌떼처럼 일어났다. 이때 원종과 애노 등이 사벌주에 근거하여 반란을 일으켰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원종(?~?)과 애노(?~?)가 사벌주에서 봉기한 것은 (통일) 신라 진성 여왕 3년인 889년의 일이다(사벌주는 지금의 경북 상주).

김현창(?~822)은 태종 무열왕의 후손이자 김주원의 아들이다. 부친이 왕이 되지 못한 것을 이유로 웅천주(지금의 충남 공주)에서 난을 일으킨 것은 (통일) 신라 헌덕왕 14년인 822년의 일이다[헌덕왕(재위 809-826, 제41대)].

오답 해설>

- ① 계백료서를 지어 관리의 규범을 제시한 것은 고려 태조 19년인 936년의 일이다.
- ② 녹읍이 폐지된 것은 (통일) 신라 신문왕 9년인 689년의 일이다. 참고로 진골 귀족들의 반발로 인해 경덕왕 16년인 757년에 관료전이 폐지되고 녹읍이 다시 지급되었다(녹읍 부활).
- ③ 성균관은 고려와 조선의 최고 교육 기관이다. 1308년 충선왕이 다시 즉위할 때 성균감(그 전은 국자감)을 성균관으로 개칭하였다.
- ④ 초조대장경을 조판하기 시작한 것은 거란의 제2차 침입 시이다. 국난 극복을 기원하며 고려 현종 2년인 1011년부터 고려 선종 4년인 1087년까지 조판하였다. 초조대장경은 고려 최초의 대장경으로 완료 후 대구 부인사에 보관하였으나 몽골의 제2차 침입 때 소실되고 말았다(1232, 고종 19).

08 - 발해와 고구려의 문화적 연관성

8.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한국사 모둠별 탐구 활동 안내

◆ 주제:

◆ 방법: 문헌 조사, 인터넷 검색 등을 활용하여 아래에 제시된 문화유산을 탐구한다.

◆ 모둠별 탐구 자료

1모둠	2모둠
 <p>▲ 크라스키노 성 유적 출토 연꽃무늬 수막새</p>	 <p>▲ 콕사로프카 평지성 온돌 유적</p>

- ① 백제 문화의 국제성
- ② 신라와 서역의 교류
- ③ 가야 문화의 일본 전파
- ④ 고려에서 유행한 몽골풍
- ⑤ 발해와 고구려의 문화적 연관성

정답> ⑤

'한국사 모둠별 탐구 활동 안내'라는 제목 아래 주제로 '(가)', 방법으로 '문헌 조사, 인터넷 검색 등을 활용하여 아래에 제시된 문화유산을 탐구한다'가 나와 있다. 이어 모둠별 탐구 자료로 1모둠에는 '크라스키노 성 유적 출토 연꽃무늬 수막새'가, 2모둠에는 '콕사로프카 평지성 온돌 유적'이 사진과 함께 제시되어 있다. 크라스키노 성[토성] 유적은 러시아의 연해주 크라스키노에 있는 고구려 및 발해 유적이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남쪽으로 약 280km 떨어져 있으며 러시아, 북한, 중국 등 3개국의 접경 지대에 위치해 있다. 해당 지역은 해상 교통과 육상 교통의 중심지이다. 콕사로프카 평지성 온돌 유적 역시 러시아 연해주에 위치한 발해 유적이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북쪽으로 약 400킬로미터 위에 위치해 있다. 두 유적 모두 러시아와 우리나라가 공동으로 발굴한 곳이다.

주어진 선지 중에서 '발해와 고구려의 문화적 연관성'이 주제로 가장 적합하다.

오답 해설>

- ① 백제 문화의 국제성과는 관련이 없다.
- ② 신라와 서역의 교류와는 관련이 없다. 신라의 고분에서 출토된 서역의 유물 등이 제시되어야 한다.
- ③ 가야 문화의 일본 전파와는 관련이 없다.
- ④ 고려에서 유행한 몽골풍과는 관련이 없다.

09 - 후백제 견훤

9. 밑줄 그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독서삼품과를 실시하였다.
- ② 동진으로부터 불교를 수용하였다.
- ③ 후당과 오월에 사신을 파견하였다.
- ④ 광평성 등의 정치 기구를 마련하였다.
- ⑤ 화랑도를 국가적인 조직으로 개편하였다.

정답> ③

'대한민국 방방곡곡 - 김제 금산사'라는 제목 아래 '금산사는 삼국 시대에 창건된 유서 깊은 사찰입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완산주를 도읍으로 국가를 세운 인물이 아들 신검 등에 의해 유폐되었다가 탈출한 곳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찰은 국보인 미륵전을 비롯하여 여러 점의 국가 지정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밑줄 그은 '인물'은 후백제를 세운 견훤(재위 900-935, 제1대)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견훤은 (왕위 계승을 둘러싼 내분으로) 아들 신검(재위 935-936, 제2대)에 의해 전북 김제에 위치한 금산사에 유폐되었다가(935.3-6). 탈출한 후 고려 태조 왕건에게 귀부하였다(935.6).

견훤은 (중국의) 후당과 오월에 사신을 파견하였다. 후백제는 건국을 전후하여 오월과 교류하다 925년 이후에는 새롭게 건국된 후당과 교류하였으며 927년에는 거란과의 교류를 시도하기도 하였다.

오답 해설>

- ① 독서삼품과를 실시한 인물은 (통일) 신라 원성왕(재위 785-798, 제38대)이다(788, 원성왕 4).
- ② 동진으로부터 불교를 수용한 인물은 백제 침류왕(재위 384-385, 제15대)이다(384, 침류왕 원년)[인도 승려 마라난타(?~?)]. 참고로 백제에서 불교가 꽃피기 시작한 것은 이후 적어도 백여 년 이상이 흐른 후부터라는 연구가 있다.
- ④ (최고 중앙 관서인) 광평성 등의 정치 기구를 마련한 인물은 후고구려를 세운 궁예(?~918)이다(904).
- ⑤ 화랑도를 국가적인 조직으로 개편한 인물은 신라 진흥왕(재위 540-576, 제24대)이다(576, 진흥왕 37).

10 - 고려의 경제 상황

10. 다음 제도를 시행한 국가의 경제 상황으로 옳지 않은 것은?

[2점]

문종 3년 5월 양반 공음전시법을 정하였다. 1품은 문하시랑평장사 이상으로 전지 25결, 시지 15결이다. 2품은 참정 이상으로 전지 22결, 시지 12결이다. 3품은 전지 20결, 시지 10결이다. 4품은 전지 17결, 시지 8결이다. 5품은 전지 15결, 시지 5결이다. 이를 모두 자손에게 전하여 주게 한다. …… 공음전을 받은 자의 자손이 사직을 위태롭게 할 것을 피하거나 모반이나 대역에 연좌되거나, 여러 공죄나 사죄를 범하여 제명된 것 이외에는 비록 그 아들에게 죄가 있더라도 그 손자에게 죄가 없다면 공음전시의 3분의 1을 지급한다.

- ① 활구라고 불리는 은병이 유통되었다.
- ② 벽란도가 국제 무역항으로 번성하였다.
- ③ 서적점, 다점 등의 관영 상점이 운영되었다.
- ④ 경시서의 관리들이 수도의 시전을 감독하였다.
- ⑤ 설점수세제의 시행으로 민간의 광산 개발이 허용되었다.

정답> ⑤

'문종 3년 5월 양반 공음전시법을 정하였다. 1품은 문하시랑평장사 이상으로 전지* 25결, 시지* 15결이다. 2품은 참정 이상으로 전지 22결, 시지 12결이다. 3품은 전지 20결, 시지 10결이다. 4품은 전지 17결, 시지 8결이다. 5품은 전지 15결, 시지 5결이다. 이를 모두 자손에게 전하여 주게 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공음전을 받은 자의 자손이 사직을 위태롭게 할 것을 피하거나 모반이나 대역에 연좌되거나, 여러 공죄나 사죄를 범하여 제명된 것 이외에는 비록 그 아들에게 죄가 있더라도 그 손자에게 죄가 없다면 공음전시의 3분의 1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과전 외 토지 제도인 공음전에 관한 사료임을 알 수 있다 (1049, 문종 3). 참고로 문종 30년인 1076년에 경정 전시과가 시행되었다(전시과의 완성).

*전지(田地)와 시지(柴地): 전지는 말 그대로 논과 밭을 이르는 말이고, 시지는 땔나무를 공급하기 위해서 지급했던 토지를 가리킨다. 시지는 땔나무를 공급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대개 수도인 개경 부근에 위치하였다.

설점수세제의 시행으로 민간의 광산 개발을 허용된 것은 조선 효종 2년인 1651년의 일이다.

오답 해설>

- ① 활구라고 불리는 은병이 유통된 것은 고려 숙종 6년인 1101년의 일이다.
- ② 벽란도가 국제 무역항으로 번성한 것은 고려 전기의 일이다. 예성강 하류에 있었던 벽란도는 고려 전기의 대표적인 국제 무역항이었다(벽란도라는 항구의 이름이 벽란정에서 유래).
- ③ (개경, 서경과 같은 대도시에서) 서적점, 다점 등의 관영 상점이 운영된 것은 고려 전기의 일이다. 약점과 주점 등도 운영되었다.
- ④ 경시서**의 관리들이 수도의 시전을 감독한 것은 고려 전기의 일이다.

**경시서의 관리들이 수도[개경]의 시전을 감독하기 시작한 것은 고려 목종 대(재위 997-1009, 제7대)로 추정된다(경시서 자체는 그 이전에 설치되었을 것으로 추정). 그러다 고려 문종 대(재위 1046-1083, 제11대)에 이르러 경시서의 직제가 확대되었다. 이후 경시서는 조선 초에도 계속 존속되다가 세조 12년(1466)에 관제를 개혁할 때 평시서(平市署)로 개칭되었다.

11 - 거란에 대한 고려의 대응

11. (가)~(다) 학생이 발표한 내용을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2점]



- ① (가) - (나) - (다)
- ② (가) - (다) - (나)
- ③ (나) - (가) - (다)
- ④ (나) - (다) - (가)
- ⑤ (다) - (나) - (가)

정답> ②

주제로 '거란에 대한 고려의 대응'이 제시되어 있다. 이어 맨왼쪽 말풍선에 '광군을 창설하여 거란의 침입에 대비하였습니다'는 말이, 가운데 말풍선에는 '강감찬이 귀주에서 거란군을 크게 물리쳤습니다'는 말이, 맨오른쪽 말풍선에는 '서희가 소손녕과 외교 담판을 벌여 강동 6주 지역을 확보하였습니다'는 말이 나와 있다. 거란의 외침에 대비하여 광군을 창설한 것은 고려 정종 2년인 947년의 일이다. 강감찬의 귀주 대첩이 있었던 것은 고려 현종 10년인 1019년의 일이다(거란의 제3차 침입). 문신 서희(942~998)가 거란의 적장 소손녕(?~?)과 외교 담판을 벌여 강동 6주를 획득한 것은 성종 12년인 993년의 일이다(거란의 제1차 침입 시).

이상을 일어난 순서대로 나열하면, '(가)-(다)-(나)'가 된다.

<3번 오답 해설>

- ④ 발해의 이불병좌상으로, 발해의 동경 용원부 유지에서 발견되었다. 현재는 일본의 동경 국립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석가불(석가여래불)과 다보불(다보여래불)이 만나 함께 앉아 있는 모습을 불상으로 표현한 것이다.
- ⑤ 백제의 금동 대향로이다(국보 제287호). 백제 금동 대향로의 뚜껑 꼭대기에는 봉황이 부착되어 있고 뚜껑에는 23개의 산들이 4~5겹으로 첩첩산중을 이루고 있다. 도교와 불교가 혼합된 백제 금속공예 최고의 걸작품으로 꼽히고 있다. 백제 왕실의 의례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5번 오답 해설>

- ④ 이사부(?~?)가 우산국을 정복한 것은 신라 지증왕 13년인 512년의 일이다.
- ⑤ 사찬 시득(?~?)이 기벌포에서 당군에 승리한 것은 신라 문무왕 16년인 676년 11월의 일이다[기벌포 전투(해전)]. 당시 당의 해군을 이끈 인물은 설인귀(613~683)이다.

12 - 고려의 어사대

12. (가)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역사 용어 해설

(가)

1. 개요

고려의 관청으로 정치의 잘잘못을 가리고 풍속을 교정하며, 관리들의 부정을 감찰하고 탄핵하는 일을 담당함.

2. 관련 사료

유사(有司)에서 아뢰기를, “중광사 조성도감의 책임자 정장이 관리 감독하는 물품을 이서(吏胥) 승적과 함께 도둑질하였으니, 법에 따라 장형에 처하고 유배 보내길 청합니다.”라고 하자, 왕이 가벼운 형벌을 적용하라고 명령하였다. 하지만 (가)에서 논박하기를, “법에 의거하여 판결하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자, 이를 윤허하였다.

- 「고려사」 -

- ① 무신 집권기 최고 권력 기구였다.
- ② 원 간섭기에 첨의부로 격하되었다.
- ③ 고려 말에 도평의사사로 개편되었다.
- ④ 관직 임명에 대한 서경권을 행사하였다.
- ⑤ 서얼 출신의 학자들이 검서관으로 기용되었다.

정답> ④

1. 개요에 '고려의 관청으로 정치의 잘잘못을 가리고 풍속을 교정하며, 관리들의 부정을 감찰하고 탄핵하는 일을 담당함'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2. 관련 사료에는 '유사(有司)*에서 아뢰기를, 중광사 조성도감의 책임자 정장이 관리 감독하는 물품을 이서(吏胥)** 승적과 함께 도둑질하였으니, 법에 따라 장형에 처하고 유배 보내길 청합니다'라고 하자, 왕이 가벼운 형벌을 적용하라고 명령하였다. 하지만 (가)에서 논박하기를, 법에 의거하여 판결하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자, 이를 윤허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가) 기구'는 관리의 비리를 감찰하고 풍기를 단속하는 감찰 기구인, 고려의 어사대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

*유사(有司): 전통 사회에서 자생적 모임이나 단체에서 사무를 맡은 직책의 이름. 소임(所任)이라고도 한다.

**이서(吏胥): 관아에 속하여 말단 행정 실무에 종사하던 구실아치. 고려 시대에는 중앙의 각 관아에 속한 말단 행정 요원만을 가리켰으나, 조선 시대에는 경향(京鄕)의 모든 이직(吏職) 관리를 뜻하였다.

어사대의 관원[관리]들은 중서문하성의 낭사와 더불어 대간(臺諫)으로 불렸으며, 왕권을 견제하는 간쟁·봉박·서경권을 행사하였다.

오답 해설>

① 무신 집권기 최고 권력 기구는 교정도감(敎定都監)이다(1209, 고려 희종 5). 참고로 정중부, 이의민 집권기(각 1170~1179/1183~1196)에는 최고 무신 합좌 기구인 중방(重房)이 사실상의 최고 권력 기구였다.

② 원 간섭기*에 첨의부로 격하된 기구는 중서문하성과 상서성이다(2성 6부 → 1부 4사). 그 외 중추원(추밀원)이 밀직사로, 어사대가 감찰사로 격하되었다(1275, 충렬왕 원년). 이어 이듬해인 1276년(충렬왕 2)에는 다루가치의 지적에 따라 각종 왕실 용어마저 격하되었다(제후국 또는 부마국 체제 정착).

<12쪽 23번 아래 추가 해설>

13 - 몽골의 침입

13. (가)의 침입에 대한 고려의 대응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점]

강화중성은 (가)의 침략에 맞서 고려가 강화도로 천도한 이후 건립한 내성, 중성, 외성 중 하나입니다. 강화중성은 당시 수도를 둘러싼 토성(土城)으로, 이번 발굴 조사에서 방어를 위해 성벽의 바깥에 돌출시킨 대규모 치성(雉城)이 확인되었습니다.

— <보기> —

- ㄱ. 양규가 무로대에서 적군을 물리쳤다.
- ㄴ. 김윤후가 충주성 전투에서 활약하였다.
- ㄷ. 송문주가 죽주성에서 적군을 격퇴하였다.
- ㄹ. 윤관이 별무반을 이끌고 동북 9성을 쌓았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③

'강화중성은 (가)의 침략에 맞서 고려가 강화도로 천도한 이후 건립한 내성, 주성, 외성 중 하나입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강화중성은 당시 수도를 둘러싼 토성(土城)으로, 이번 발굴 조사에서 방어를 위해 성벽의 바깥에 돌출시킨 대규모 치성(雉城)이 확인되었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고려가 몽골의 침략을 피해 강화도로 천도한 것은 고려 고종 19년인 1232년의 일이다.

ㄱ. 무신 양규(?~1011)가 (평안북도에 위치한) 무로대에서 적군을 물리친 것은 현종 원년인 1010년의 일이다(거란의 제2차 침입 시). 사료에는 양규가 거란의 군대를 무로대에서 습격하여 2,000여 급을 베고, 포로가 되었던 남녀 3,000여 명을 되찾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ㄴ. 김윤후(?~?)가 충주성 전투에서 활약한 것은 몽골의 제5차 침입 시의 일이다(1253, 고종 40).

ㄷ. (죽주방호별감) 송문주(?~?)가 죽주성에서 적군을 격퇴한 것은 고종 23년인 1236년의 일이다(죽주 전투, 죽주성 전투)[몽골의 제3차 침입 시(1235~1239)]. 죽주(산)성은 지금의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에 위치한다.

ㄹ. 윤관(1040~1111)이 별무반을 이끌고 (여진을 물리친 후) 동북 9성을 축조한 것은 고려 예종 2년인 1107년의 일이다.

이상에서 몽골의 침입에 대한 고려의 대응으로 옳은 것은, 'ㄴ과 ㄷ'이다.

14 - 최충헌의 봉사 10조

14. 다음 자료에 나타난 상황 이후의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경대승이 정중부를 죽이자, 조정 신하들이 대궐에 나아가 축하하였다. 경대승이 말하기를, "임금을 죽인 사람이 아직 살아 있는데, 무슨 축하인가?"라고 하였다. 이의민은 이 말을 듣고 매우 두려워하여 날랜 사람들을 모아서 대비하였다. 또한 경대승의 도방(都房)에서 자기들이 싫어하는 사람을 죽일 것을 모의한다는 말을 들었다. 이의민이 더욱 두려워하여 마을에 큰 문을 세워 밤마다 경계하였다.

- ① 묘청 등이 서경 천도를 주장하였다.
- ② 최충헌이 왕에게 봉사 10조를 올렸다.
- ③ 강조가 정변을 일으켜 왕을 폐위하였다.
- ④ 이자겸과 척준경이 반란을 일으켜 궁궐을 불태웠다.
- ⑤ 김보당이 폐위된 왕의 복위를 주장하며 군사를 일으켰다.

정답> ②

'경대승이 정중부를 죽이자, 조정 신하들이 대궐에 나아가 축하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경대승이 말하기를, 임금을 죽인 사람이 아직 살아 있는데, 무슨 축하인가라고 하였다. 이의민은 이 말을 듣고 매우 두려워하여 날랜 사람들을 모아서 대비하였다. 또한 경대승의 도방(都房)에서 자기들이 싫어하는 사람을 죽일 것을 모의한다는 말을 들었다. 이의민이 더욱 두려워하여 마을에 큰 문을 세워 밤마다 경계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경대승(1154~1183, 집권 1179-1183)이 무신 집권자 정중부(1106~1179, 집권 1174-1179) 등을 제거하고 권력을 장악한 것은 명종 9년인 1179년의 일이다. 또 도방(都房)은 고려 무신 정권 집권자의 사병 집단이자 숙위 기관으로 경대승이 집권 후 처음 설치하였다. 이처럼 경대승은 일종의 호위 기구인 도방을 두어 자신의 신변의 안전을 도모하였으나 30세의 젊은 나이에 병사하고 말았다. 경대승 사후 이의민(?~1196, 집권 1183-1196)이 집권하였다.

최충헌(1149~1219, 집권 1196-1219)이 (이의민을 축출하고 집권한 직후) 왕에게 봉사 10조를 올려 시정 개혁을 건의한 것은 고려 명종 26년인 1196년의 일이다.

오답 해설>

- ① 묘청(?~1135) 등이 서경 천도를 주장한 것은 고려 인종 13년인 1135년의 일이다(묘청의 난).
- ③ 서북면도순검사 강조(?~1010)가 정변을 일으켜 목종(재위 997-1009, 제7대)을 폐위한 것은 1009년의 일이다(강조의 정변). 거란의 제2차 침입의 빌미가 되었다.
- ④ 이자겸(?~1126)과 척준경(?~1144)이 반란을 일으켜 궁궐을 불태운 것은 고려 인종 4년인 1126년의 일이다(이자겸의 난).
- ⑤ 동북면 병마사 김보당(?~1173)이 폐위된 의종 복위를 주장하며 (동계에서) 군사를 일으킨 것은 고려 명종 3년인 1173년의 일이다(김보당의 난).

15 - 고려 공민왕 대에 볼 수 있는 모습

15. 밑줄 그은 '왕'의 재위 기간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이자춘이 쌍성 등지의 천호들을 거느리고 내조하니 왕이 맞이하며 말하기를, "어리석은 민(民)을 보살피 편안하게 하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았는가?"라고 하였다. 그때 어떤 사람이 '기철이 쌍성의 반민(叛民)들과 몰래 내통하여 한패로 삼아 역모를 도모하려 한다고 밀고하였다. 왕이 이자춘에게 이르기를, "경은 마땅히 돌아가서 우리 민을 진정시키고, 만일 변란이 일어나면 마땅히 내 명령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 이자춘이 명령을 듣고 곧 행군하여 유인우와 합세한 후 쌍성총관부를 공격하여 격파하였다.

- ① 초량 왜관에서 교역하는 상인
- ② 내의원에서 동의보감을 읽는 의원
- ③ 주자감에서 유학을 공부하는 학생
- ④ 전민변정도감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농민
- ⑤ 황룡사 구층 목탑의 건립에 참여하는 장인

정답> ④

'이자춘이 쌍성 등지의 천호들을 거느리고 내조하니 왕이 맞이하여 말하기를, 어리석은 민(民)을 보살피 편안하게 하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았는가라고 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그때 어떤 사람이 기철이 쌍성의 반민(叛民)들과 몰래 내통하여 한패로 삼아 역모를 도모하려 한다고 밀고하였다. 왕이 이자춘에게 이르기를, 경은 마땅히 돌아가서 우리 민을 진정시키고, 만일 변란이 일어나면 마땅히 내 명령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 이자춘이 명령을 듣고 곧 행군하여 유인우와 합세한 후 쌍성총관부를 공격하여 격파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자춘(1315~1361)은 태조 이성계(1335~1408)의 아버지(부친)로, 함경도 쌍성 지방에서 원(나라)의 천호(天戶)였다. 고려 공민왕 4년인 1355년에 고려에 내달하여 귀의하였다(소부윤이라는 벼슬을 받음). 그리고 이듬해인 1356년(공민왕 5)에 동북면 병마사 유인우(?~1364) 등과 함께 공민왕의 명으로 쌍성총관부를 공격하여 수복하였다(철령 이북 지역 수복).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한 것은 고려 공민왕 15년인 1366년의 일이다.

*전민변정도감: 권세가에게 점탈된 토지나 농민을 되찾아 바로잡기 위하여 설치된 임시 개혁 기관으로, 사실 그 전에도 역대에 걸쳐 여러 번 설치되었다가 혁파되곤 하였다. 차례로 살펴보면, 원종 10년인 1269년, 충렬왕 14년인 1288년, 충렬왕 27년인 1301년, 공민왕 원년인 1352년(권문세족의 반발로 폐지), 공민왕 15년인 1366년, 마지막으로 우왕 7년인 1381년에 각 설치되었다. 전민변정도감을 이처럼 여러 번 설치한 것은 부원파(친원파)를 비롯한 권문세족의 힘을 약화시키고, 더불어 국가 재정 수입의 기반을 확대하고자 한 데 있었다. 하지만 재차 설치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그만큼 원 간섭기 이후 권문세족의 권세가 막강하였음을 의미한다.

오답 해설>

- ① 초량 왜관에서 상인들이 교역할 수 있게 된 것은 조선 후기의 일이다. 즉 기존의 두모포 왜관**이 협소하다며 이전을 요구하는 왜인들의 잦은 요청을 수용하여 조선 숙종 4년인 1678년에 초량 왜관이 새로 설치되었다(부산 중구 일대).
- **두모포(豆毛浦) 왜관: 조선 선조 40년인 1607년 부산 두모포에 설치되었다. 부산 두모포는 현 부산 동구청이 있는 자리이다(부산광역시 동구 구청로1(수정동)).
- ② 허준(1539~1615)이 동의보감 집필을 끝낸 것은 광해군 2년인 1610년이고, 내의원에서 이를 출간한 것은 광해군 5년인 1613년의 일이다.
- ③ 주자감은 발해의 최고 교육 기관이다(귀족 자제에게 유교 경전 교육).
- ⑤ 신라의 대국통, 자장(590~658)의 건의로 황룡사 구층 목탑이 건립된 것은 선덕 여왕 15년인 646년의 일이다(건의한 것은 선덕 여왕 12년인 643년).

16 - 진각국사 혜심

16.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화엄일승법계도를 지어 화엄 사상을 정리하였다.
- ② 해동 천태종을 개창하여 불교 교단 통합에 힘썼다.
- ③ 선문염송집을 편찬하고 유불 일치설을 주장하였다.
- ④ 권수정혜결사문을 작성하여 정혜쌍수를 강조하였다.
- ⑤ 보현십원가를 지어 불교 교리를 대중에게 전파하였다.

정답> ③

'이것은 전라남도 강진군 월남사지에 있는 (가)의 비입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비문에는 지눌의 제자인 그가 수선사의 제2대 사주가 된 일, 당시 집권자인 최우가 그에게 두 아들을 출가(出家)시킨 일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지눌의 제자'이자 '수선사의 제2대 사주'가 되었던 부분에서 주어진 '(가)'는 진각국사 혜심(1178~1234)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강진 월남사는 신증동국여지승람에 혜심이 세운 것으로 되어 있지만, 경내 삼층 석탑의 규모와 양식으로 보아 그 이전에 세워진 추정하고 있다(정유재란 때 소실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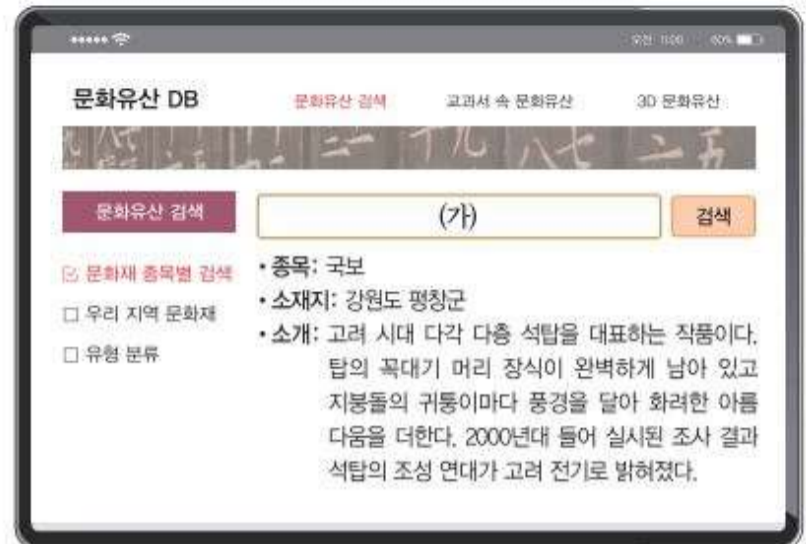
혜심은 선문염송집을 편찬하고 (심성의 도야를 강조한) 유불 일치설을 주장하였다(1226, 고종 13). 선문염송집은 중국과 한국의 역대 선사들의 어록을 모은 공안집[화두집]이다. 참고로 혜심은 출가 전에 사마시에 합격하여 국자감의 태학에 입학한 유학도이기도 하였다.

오답 해설>

- ① 화엄일승법계도를 지어 화엄 사상을 정리한 인물은 원교국사의 의상(625-702)이다(668, 문무왕 8).
- ② (국청사의 주지가 되어) 해동 천태종을 개창하여 불교 교단 통합에 힘쓴 인물은 대각국사 의천(1055-1101)이다(1097, 고려 속종 2).
- ④ 권수정혜결사문을 작성하여 정혜쌍수를 강조한 인물은 불일보조국사 지눌(1158~1210)이다(1190, 고려 명종 20). 지눌은 권수정혜결사문에서 선정과 지혜를 함께 닦을 것을 결의하였다. 먼저 선정과 지혜를 함께 닦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수행자들이 갖기 쉬운 의문을 제시하고 그에 답한 다음, 정혜결사를 하게 된 경위를 밝혔다.
- ⑤ 보현십원가를 지어 불교 교리를 대중에게 전파한 인물은 원통대사 균여(923~973)이다(광종 대인 963년과 967년 사이에 지음).

17 - 평창 월정사 팔각 구층 석탑

17. (가)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3점]



정답> ①

'국보'로 '강원도 평창군'에 소재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소개로 '고려 시대 다각 다층 석탑을 대표하는 작품이다. 탑의 꼭대기 머리 장식이 완벽하게 남아 있고 지붕돌의 귀퉁이마다 풍경*을 달아 화려한 아름다움을 더한다. 2000년대 들어 실시된 조사 결과 석탑의 조성 연대가 고려 전기로 밝혀졌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가)'는 평창 획이예요. 곧 빌게요. 작은 딸 올림'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밑줄 그은 '이 탑'은 송의 영향을 받은 평창 월정사 팔각 구층 석탑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국보 제48-1호).

*풍경(風磬): 처마 끝에 다는 작은 종. 속에는 봉어 모양의 쇠조각을 달아 바람이 부는 대로 흔들리면서 소리가 난다.

오답 해설>

- ② 경주 정혜사지 십삼층 석탑이다(국보 제40호). 통일 신라 시대의 석탑으로 층수를 포함하여 특이한 형태로 축조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③ 개성 경천사지 십층 석탑이다(1348, 충렬왕 4)(국보 제86호). 고려 시대의 석탑으로, 서울 원각사지 십층 석탑에 영향을 주었다(1467, 세조 13).
- ④ 발해의 영광탑이다. 영광탑은 중국 지린성 창바이조선족자치현 서북쪽 탑산에 위치해 있다. 8~10세기에 건립된 발해 시대의 누각식 전탑(모전 석탑)으로 창바이 영광탑 또는 발해 전탑으로도 불린다. 1908년 장평타이라는 청의 관리가 이 탑에 대해 공사사당의 영광전(靈光殿)처럼 오랜 세월 속에서도 의연하게 남아 있다고 평한 뒤로 영광탑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 ⑤ (강원도) 정선 정암사 수마노탑이다(국보 제332호). 고려 시대의 석탑으로 7층 모전 석탑 양식을 취하고 있다.

18 - 조선 초의 사병 혁파

18. 다음 시나리오의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12. 이성계의 집
 이방원이 정몽주를 죽였다고 말하자 이성계가 크게 화를 낸다.
 이성계: 대신을 함부로 살해하였으니, 나라 사람들이 내가 몰랐다고 하겠느냐? 우리 가문은 평소 충효로 소문났는데, 네가 감히 불효를 저질러 이렇게 되었구나.
 이방원: 정몽주 등이 우리 가문을 무너뜨리려 하는데, 어찌 앉아서 망하기만을 기다리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효입니다.

- ① 최승로가 시무 28조를 올렸다.
- ② 권근 등의 건의로 사병이 혁파되었다.
- ③ 안우, 이방실 등이 홍건적을 격파하였다.
- ④ 망이·망소이가 공주 명학소에서 봉기하였다.
- ⑤ 쌍기의 의견을 수용하여 과거제가 시행되었다.

정답> ②

'#12. 이성계의 집'에서 '이방원이 정몽주를 죽였다고 말하자 이성계가 크게 화를 낸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이성계 왈 '대신을 함부로 살해하였으니, 나라 사람들이 내가 몰랐다고 하겠느냐? 우리 가문은 평소 충효로 소문났는데, 네가 감히 불효를 저질러 이렇게 되었구나'라는 질책이 나와 있다. 마지막으로 이방원 왈 '정몽주 등이 우리 가문을 무너뜨리려 하는데, 어찌 앉아서 망하기만을 기다리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효입니다'는 대답이 나와 있다. 포은 정몽주(1337~1392)가 이성계의 다섯째 아들인 이방원(1367~1418)(이후 태종)에 의해 개경의 선죽교에서 시해된 것은 고려 공양왕 4년(조선 건국 직전)인 1392년 3월의 일이다. 당시 정몽주는 이성계가 사냥하던 말에서 떨어져 위독하다는 소식을 접하고 이성계 일파를 탄핵하는 상소를 올리게 하였다.

(대사헌) 권근(1352~1409) 등의 건의로 사병이 혁파된 것은 정조 2년인 1400년 4월의 일이다. 두 달 전에 있었던 제2차 왕자의 난으로 실세가 된 이방원(1400년 2월 왕세자로 책봉)의 의도가 반영되었다(1400년 11월에 즉위, 정종은 상왕으로 물러남).

오답 해설>

- ① 최승로(927~989)가 시무 28조를 건의한 것은 고려 성종 원년인 982년의 일이다.
- ③ 무신 안우(?~1362)와 이방실(1298~1362) 등이 홍건적을 격파한 것은 홍건적의 제2차 침입 시의 일이다(1361, 공민왕 10). 홍건적이 침략한 것은 두 차례로 제1차 침입은 고려 공민왕 8년인 1359년이고, 제2차 침입은 공민왕 10년인 1361년에 일어났다. 참고로 이방실은 홍건적의 1차 침입 시에도 격파에 기여하였고, 공민왕은 2차 침입 시 복주(지금의 경북 안동)까지 피란하였다.
- ④ 망이(?~?)·망소이(?~?)가 공주 명학소에서 봉기한 것은 고려 명종 6년인 1176년의 일이다(망이·망소이의 난 또는 공주 명학소의 난).
- ⑤ (중국 후주에서 귀화한) 쌍기(?~?)의 건의를 수용하여 과거제가 시행된 것은 고려 광종 9년인 958년의 일이다.

19 - 조선 세종의 업적

19. 밑줄 그은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2점]

이전에 주조한 활자가 크고 고르지 않았다. 이에 왕께서 경자년에 다시 주조하셨다. 그리하여 그 모양이 작고 바르게 되었으니, 이것으로 인쇄하지 않은 책이 없었다. 이를 경자자라고 하였다. 갑인년에 다시 『위선음졸(爲善陰鷲)』의 글자 모양을 본떠 갑인자를 주조하니, 경자자에 비하여 조금 크고 활자 모양이 매우 좋았다.

- ① 조선의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을 반포하였다.
- ② 역대 문물을 정리한 동국문헌비고를 간행하였다.
- ③ 삼남 지방의 농법을 소개한 농사직설을 편찬하였다.
- ④ 전세를 1결당 4~6두로 고정하는 영정법을 제정하였다.
- ⑤ 삼정의 문란을 시정하기 위해 삼정이정청을 설치하였다.

정답> ③

'이전에 주조한 활자가 크고 고르지 않았다. 이에 왕께서 경자년에 다시 주조하셨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그리하여 그 모양이 작고 바르게 되었으니, 이것으로 인쇄하지 않은 책이 없었다. 이를 경자자라고 하였다. 갑인년에 다시 『위선음졸(爲善陰鷲)』*의 글자 모양을 본떠 갑인자를 주조하니, 경자자에 비하여 조금 크고 활자 모양이 매우 좋았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경자자가 주조된 것은 세종 2년인 1420년의 일이고, 갑인자가 주조된 것은 세종 16년인 1434년의 일이다(세종(재위 1418-1450), 제4대)(참고로 태종 3년인 1403년에 계미자 제작).

*『위선음졸(爲善陰鷲)』: 명 초에 간행된 교화서

삼남 지방의 농법을 소개한 농사직설을 편찬한 것은 세종 11년인 1429년의 일이다.

오답 해설>

- ① 조선의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을 반포한 것은 성종 16년인 1485년의 일이다.
- ② 역대 문물을 정리한 동국문헌비고를 간행한 것은 영조 46년인 1770년의 일이다.
- ④ 전세를 1결당 4~6두로 고정하는 영정법을 제정한 것은 인조 13년인 1635년의 일이다. 정식 명칭은 영정과율법으로, 풍흉에 관계없이 1결당 쌀 4두를 징수하였다(전세의 정액화).
- ⑤ (진주 농민 봉기의 원인인) 삼정의 문란을 시정하려고 삼정이정청을 설치한 것은 철종 13년인 1862년의 일이다.

20 - 갑자사화

20. (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가) 정문형, 한치례 등이 아뢰기를, “지금 김종직의 조의제문을 보니, 입으로만 읽지 못할 뿐 아니라 차마 눈으로도 볼 수 없습니다. …… 마땅히 대역의 죄로 논단하고 부관참시해서 그 죄를 분명히 밝혀 신하와 백성의 분을 씻는 것이 사리에 맞는 일입니다.”라고 하였다. …… 왕이 정문형 등의 의견을 따랐다.
 (나) 의금부에 전지하기를, “조광조, 김정 등은 서로 사귀어 무리를 이루고 자기 편은 천거하고 자기 편이 아닌 자는 배척하면서, 위세를 높여 서로 의지하며 권세가 있는 요직을 차지하였다. …… 이 모든 일들을 조사하여 밝혀라.”라고 하였다.

- ① 정여립 모반 사건으로 기축옥사가 일어났다.
- ② 외척 간의 권력 다툼으로 윤임이 제거되었다.
- ③ 자의 대비의 복상 문제로 예송이 전개되었다.
- ④ 희빈 장씨 소생의 원자 책봉 문제로 환국이 발생하였다.
- ⑤ 폐비 윤씨 사사 사건을 빌미로 김굉필 등이 처형되었다.

정답> ⑤

(가)에 '정문형, 한치례 등이 아뢰기를, 지금 김종직의 조의제문을 보니, 입으로만 읽지 못할 뿐 아니라 차마 눈으로도 볼 수 없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마땅히 대역의 죄로 논단하고 부관참시해서 그 죄를 분명히 밝혀 신하와 백성의 분을 씻는 것이 사리에 맞는 일입니다'라고 하였다. …… 왕이 정문형 등의 의견을 따랐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조선 연산군 4년인 1498년에 일어난 무오사화와 관련된 자료임을 알 수 있다. 무오사화는 점필재 김종직(1431~1492)의 '조의제문'이 사초에 기록된 것이 트집 잡혀 발생하였고, 그 제자인 김일손(1464~1498) 등의 사림파가 처형되는 수난을 당하였다. (나)에는 '의금부에 전지하기를, 조광조, 김정 등은 서로 사귀어 무리를 이루고 자기 편은 천거하고 자기 편이 아닌 자는 배척하면서, 위세를 높여 서로 의지하며 권세가 있는 요직을 차지하였다. …… 이 모든 일들을 조사하여 밝혀라'고 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조광조', '김정' 등의 인물을 통해 조선 중종 14년인 1519년에 일어난 기묘사화와 관련된 자료임을 알 수 있다.

폐비 윤씨 사사 사건으로 인해 한훤당 김굉필(1454~1504) 등(의 사림)이 처형된 것은 연산군 10년인 1504년의 일이다(갑자사화). 참고로 김굉필은 김종직 문하에서 학문을 배우면서 특히 『소학(小學)』에 심취하여 스스로 '소학동자(小學童子)'라 칭한 적이 있을 만큼 성리학의 정통을 계승한 인물이다(문묘 배향).

오답 해설>

- ① 정여립(1546~1589) 모반 사건으로 기축옥사가 일어난 것은 선조 22년인 1589년의 일이다. 1591년까지 정여립과 연루된 다수의 동인이 희생되었다. 동인(東人)과 서인(西人)의 대립과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계기가 된 사건이기도 하다.
- ② 외척 간의 권력 다툼으로 (대윤인) 윤임 일파가 제거된 것은 명종 원년인 1545년의 일이다(을사사화).
- ③ (인조의 계비인) 자의 대비(1624~1688)의 복상 문제로 예송이 전개된 것은 조선 현종 대(재위 1659-1674, 제18대)이다[1차 예송(기해예송)-1659(현종 즉위년)/2차 예송(갑인예송)-1674(현종 15)].
- ④ 희빈 장씨(1659~1701) 소생의 원자 책봉 문제로 환국이 발생한 것은 숙종 15년인 1689년의 일이다(기사환국). 서인이 몰락하고 남인이 정치 실세로 다시 등장하였다(남인 집권).

21 - 후금 정벌

21.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2점]

4월 누르하치의 군대가 무순을 함락하고, 7월에는 청하를 함락하였다. 이에 명에서 정벌을 결정하고 우리나라에 군사 징발을 요구하였다. 명의 총독 왕가수의 군문(軍門)에서 약 4만의 병사를 요구하였으나, 경략(經略) 양호가 조선의 병사와 군마가 적다고 하여 마침내 그 수를 줄여서 총수(銃手) 1만 명만 징발하였다. 7월 조정에서 강홍립을 도원수로, 김경서를 부원수로 삼았다.

- 『책중일록』 -

1453	1510	1597	1627	1728	1811
	(가)	(나)	(다)	(라)	(마)
계유 정난	삼포 왜란	정유 재란	정묘 호란	이인좌의 난	홍경래의 난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⑤ (마)	

정답> ③

'4월 누르하치*의 군대가 무순을 함락하고, 7월에는 청하를 함락하였다. 이에 명에서 정벌을 결정하고 우리나라에 군사 징발을 요구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명의 총독 왕가수의 군문(軍門)에서 약 4만의 병사를 요구하였으나, 경략(經略) 양호가 조선의 병사와 군마가 적다고 하여 마침내 그 수를 줄여서 총수(銃手)** 1만 명만 징발하였다. 7월 조정에서 강홍립을 도원수로, 김경서를 부원수로 삼았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광해군 10년인 1618년에 있었던 명과 조선의 후금(1636년에 '대청'으로 국호 개칭) 정벌과 관련된 사실들이다. 이후 5도 도원수 강홍립(1560~1627)이 이끈 조선인 부대는 이듬해 3월 사르후 전투***에 참전하였지만 대패한 후 항복하고 말았다. 출처인 『책중일록』은 당시 출정하였던 도원수 종사관 이민환(1573~1649)이 포로로 잡혔다가 1620년(광해군 12) 7월에 귀환할 때까지 거의 매일 기록한 종군 및 포로수용소 일기이다.

*누르하치(1559~1626): 건주여진의 부족장이자 청의 시조인 청 태조(재위 1616-1626)이다.

**총수(銃手): 조총을 쏘는 병사. 즉 조총병을 가리킨다.

***사르후 전투: 조·명 연합군이 후금(청)의 군대가 만주의 사르후에서 맞서 싸운 전투로 조·명 연합군이 대패하였다. 이후 명청 교체의 분수령이 된 전투로 평가되고 있다(1619.3.1~4).

연표에서는 정유재란이 일어난 1597년에서 정묘호란이 일어난 1627년 사이인 '(다) 시기'에 해당한다.

22 - 임진왜란

22. (가)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 ① 김상룡이 강화도에서 순절하였다.
- ② 이괄이 이끈 반란군이 도성을 장악하였다.
- ③ 정봉수와 이립이 용골산성에서 항전하였다.
- ④ 김시민이 진주성에서 적군을 크게 물리쳤다.
- ⑤ 이종무가 적의 근거지인 쓰시마섬을 정벌하였다.

정답> ④

생생 한국사 교실의 수행 과제로 '(가)와/과 관련된 문화유산을 조사하여 사진과 설명을 올려 주세요'가 나와 있다. 이어 '동래부순절도(동래부사 송상현과 관민의 항전을 묘사한 그림입니다)', '금산 칠백의총(금산 전투에서 전사한 의병 7백여 명의 유해를 모신 곳입니다)', '징비록(당시 영의정을 지냈던 유성룡이 전쟁의 상황 등을 기록한 것입니다)'가 차례로 제시되어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가)'는 임진왜란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1592.4.14~1598.11.29(음력), 정유재란 포함).

충무공(시호) 김시민(1554~1592)이 진주성에서 적군을 크게 물리친 것은 1592년(선조 25) 10월(음력)에 있었던 진주(성) 대첩[제1차]이다 [1592.11.9(양력)/10.6(음력)](진주 목사 김시민 전사). 이듬해인 1593년 6월(음력)에 2차 진주(성) 대첩이 벌어졌다[1593.7.19.~27(양력)/6.21~29(음력)](경상우병사 최경희, 충청병사 황진, 진주 목사 서예원, 창의사 김천일 등, 조선 측 지휘관 및 군·관·민 6만여 명 모두 전사).

오답 해설>

① 선원[풍계] 김상룡(1561~1637)이 강화도에서 순절한 것은 병자호란 때인 1638년(인조 16) 1월의 일이다. 묘사(廟社)의 신주를 받들고 빈궁·원손을 수행해 강화도로 피난했다가 이듬해인 1638년 1월 청군에 의해 성이 함락하자 성의 남문루(南門樓)에 있던 화약에 불을 지르고 순절하였다. 참고로 이때 김상룡의 죽음이 스스로 분신한 것이 아니라 실화(失火) 때문이라는 이설도 있다.

② (평안도 병마절도사 겸 부원수였던) 이괄(1587~1624)이 이끈 반란군이 도성[한양]을 장악한 것은 인조 2년인 1624년 2월의 일이다. 이후 이괄은 도원수 장만이 거느린 관군과 길마재에서 결전했다가 참패 후 도망하다 부하에게 피살되었다. 정묘호란이 일어나게 된 한 원인[배경]이 되었다.

③ (무신이자 의병장인) 정봉수(1572~1645)와 이립(?~1627)이 용골산성에서 항전한 것은 인조 5년인 1627년 2월의 일이다(정묘호란). 용골산성은 평안북도의 염주군과 피현군의 경계에 위치하였다.

⑤ 이종무(1360~1425)가 적의 근거지인 쓰시마섬을 정벌한 것은 세종 원년인 1419년의 일이다. 쓰시마섬은 고려 말과 조선 초에 여러 차례 토벌되었는데 고려 말인 창왕 원년(1389)에 박위(?~1398)에 의해 토벌된 적도 있다.

23 - 조선 영조(속대전)

23. (가)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점]



- ① 학문 연구 기관으로 집현전을 두었다.
- ② 삼수병으로 구성된 훈련도감을 설치하였다.
- ③ 속대전을 편찬하여 통치 체제를 정비하였다.
- ④ 궁중 음악을 집대성한 악학궤범을 편찬하였다.
- ⑤ 시전 상인의 특권을 축소하는 신해통공을 단행하였다.

정답> ③

'탕평 군주 (가)을/를 만나다'는 주제가 나와 있다. 전시 유물 소개에 '수문상친림관역도'가 나와 있는데 '한성의 홍수 예방을 위해 실시한 청계천 준설 공사 현장을 (가)이/가 지켜보는 모습을 담은 그림'이다. 또 '균역법의 제정 배경 및 과정, 균역청의 운영 등을 담은 책'인 『균역사실』도 제시되어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가) 왕'은 조선의 제21대 왕인 영조(재위 1724-1776)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속대전을 편찬하여 통치 체제를 정비는 영조 22년인 1746년의 일이다.

오답 해설>

① 학문 연구 기관으로 집현전을 둔 것은 세종 2년인 1420년의 일이다. 이후 단종 복위 운동을 계기로 세조 2년인 1456년에 폐지되었다.

② 삼수병으로 구성된 훈련도감을 설치한 것은 임진왜란 발발 이듬해인 1593년(선조 26) 8월의 일이다.

④ 궁중 음악을 집대성한 악학궤범을 편찬한 것은 성종 24년인 1493년의 일이다.

⑤ 시전 상인의 특권[금난전권]을 축소하는 신해통공을 단행한 것은 정조 15년인 1791년의 일이다.

<12번 오답 해설>

*원 간섭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는 여러 설이 있지만 대체로 원종의 환도령으로 강화도에서 개경으로 환도한 1270년(원종 11)부터 시작되어(개경 환도), 공민왕의 반원 정책이 '성공'한 1356년(공민왕 5)까지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③ 고려 말에 (국방 회의 기구인) 도병마사가 도평의사사로 개편된 것은 (원 간섭기인) 충렬왕 5년인 1279년의 일이다(일종의 관제 격하). 일명 도당(都堂)이라고 하였다.

⑤ 서얼 출신의 학자들이 검서관**으로 기용된 기구는 조선의 규장각이다(1779, 조선 정조 3). 이때 이덕무, 유득공, 박제가, 서이수 4인이 등용되었다.

**규장각 검서관: 정조는 규장각 외각에 검서관(檢書官)이라는 [정직(正職)이 아닌] 잡직(雜職)을 두고 초대 검서관으로 서얼 출신인 이덕무, 유득공, 박제가, 서이수를 임명하였다(이른바 '사검서관(四檢書官)'). 이들의 기본 임무는 규장각 각신(閣臣)을 보좌하고 문서를 필사하는 것이었는데, 정조는 문신들이 매월 강(講)을 할 때 왕과 신하들 사이에 논의되는 내용을 검서관으로 하여금 기록하고 서명하여 보관하게 하는 등 이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맡겼다.

24 - 답헌 홍대용

24.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지봉유설에서 천주실의를 소개하였다.
- ② 의산문답에서 무한 우주론을 주장하였다.
- ③ 양반전을 지어 양반의 허례와 무능을 풍자하였다.
- ④ 북학의를 저술하여 청의 문물 수용을 강조하였다.
- ⑤ 동의수세보원을 편찬하여 사상 의학을 정립하였다.

정답> ②

화제의 신간으로 '답헌 평전, 시대를 앞선 조선의 실학자'이 나와 있다. 이어 목차로 '1장 명문가의 자제로 태어나다', '2장 농수각을 세우고 천문을 관측하다', '3장 연행사의 일원으로 청에 가다', '4장 『연기』, 『을병연행록』을 저술하다'가 차례로 제시되어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인물은 답헌 홍대용(1731~1783)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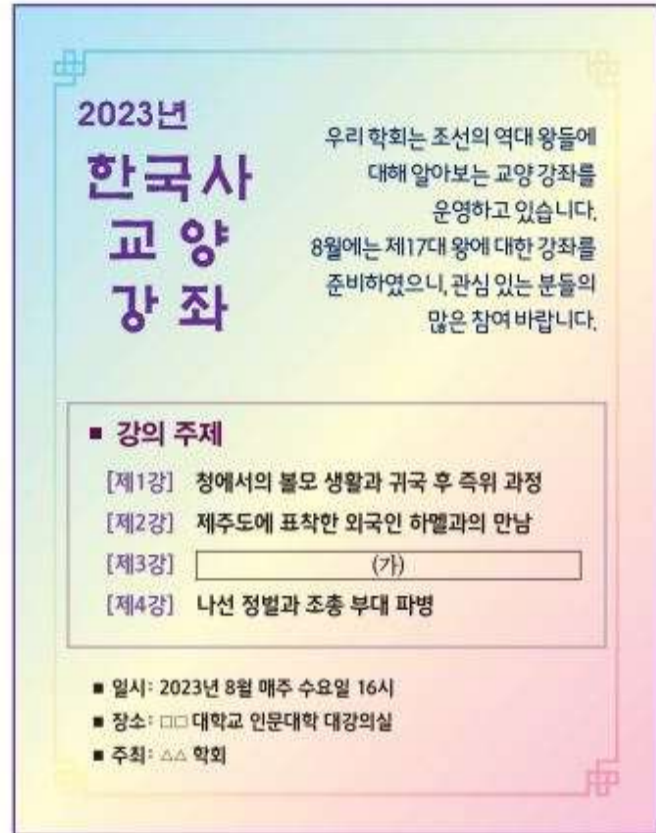
홍대용은 의산문답에서 무한 우주론을 주장하면서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비판하였다(1766, 영조 42).

오답 해설>

- ① 지봉유설에서 천주실의를 소개한 인물은 지봉 이수광(1563~1628)이다(1614, 광해군 6). 지봉유설은 우리나라 최초의 백과사전적인 저술이다.
- ③ 양반전을 지어 양반의 허례와 무능을 풍자한 인물은 연암 박지원(1737~1805)이다(저술 연대 미상).
- ④ 북학의를 저술하여 청의 문물 수용을 강조한 인물은 초정 박제가(1750~1805)이다(1778, 정조 2).
- ⑤ 동의수세보원을 편찬하여 (체질에 따라 치료를 달리하는) 사상 의학을 정립한 인물은 동무 이제마(1837~1900)이다(1894, 고종 31).

25 - 조선 효종 대의 사실

25.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 ① 어영청의 개편과 북벌 추진
- ② 위화도 회군과 과전법의 시행
- ③ 문신 재교육을 위한 초계문신제의 운영
- ④ 백두산정계비 건립과 청과의 국경 확정
- ⑤ 기유약조 체결을 통한 일본과의 무역 재개

정답> ①

'2023년 한국사 교양 강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학회는 조선의 역대 왕들에 대해 알아보는 교양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8월에는 제17대 왕에 대한 강좌를 준비하였으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강의 주제로 '[제1강] 청에서의 불모 생활과 귀국 후 즉위 과정', '[제2강] 제주도에 표착된 외국인 하멜과의 만남', '[제3강] (가)', '[제4강] 나선 정벌과 조총 부대 파병'이 차례로 제시되어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가)'는 조선의 제17대 왕인 효종(재위 1649-1659)을 가리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어영청을 정비·강화(개편)하며 북벌을 추진한 조선의 왕이 바로 효종이다(1652, 효종 3). 북벌의 대상은 청(나라)이었다. 참고로 어영청이 처음 설치된 것은 인조 2년인 1624년이다(처음에는 총융청에 소속되었다가 1628년에 새로 설치).

오답 해설>

- ② 위화도 회군이 이루어진 것은 고려 우왕 14년인 1388년의 일이고, 과전법이 시행된 것은 고려 공양왕 3년인 1391년의 일이다.
- ③ 문신 재교육을 위한 초계문신제가 운영되기 시작한 것은 정조 5년인 1781년의 일이다.
- ④ 백두산정계비를 건립하여 청과의 국경을 확정한 것은 숙종 38년인 1712년의 일이다.
- ⑤ 기유약조를 체결하여 일본과의 무역을 재개한 것은 광해군 원년인 1609년의 일이다(부산에 왜관 설치).

26 - 조선 후기의 경제 상황

26. 다음 일기가 작성된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5월 ○○일, 앞 밭에 담배를 파종했다.
5월 ○○일, 비록 비가 여러 날 내렸으나 큰비는 끝내 내리지 않았다. 가물어서 고답(高畓)은 모두 이앙을 하지 못하였다.
6월 ○○일, 목화 밭에 풀이 무성해서 노비 5명에게 김매기를 하도록 시켰다.



- ① 상평통보가 화폐로 사용되었다.
- ② 시장을 관리하기 위한 동시전이 설치되었다.
- ③ 관청에 물품을 조달하는 공인이 활동하였다.
- ④ 보부상이 장시를 돌아다니며 상품을 판매하였다.
- ⑤ 국경 지대에서 개시 무역과 후시 무역이 이루어졌다.

정답> ②

'5월 ○○일, 앞 밭에 담배를 파종했다', '5월 ○○일, 비록 비가 여러 날 내렸으나 큰비는 끝내 내리지 않았다. 가물어서 고답(高畓)은 모두 이앙을 하지 못하였다', '5월 ○○일, 목화 밭에 풀이 무성해서 노비 5명에게 김매기*를 하도록 시켰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담배', '이앙', '목화'라는 용어를 통해 주어진 일기가 작성된 시기는 조선 후기임을 알 수 있다.

*김매기: 일반적으로 잡초를 제거하는 일(잡초를 뽑아 없애는 일)을 가리키나 이뿐만 아니라 포기 사이의 굳어진 걸흠을 부수어 공기가 잘 통하고 수분이 잘 유지될 수 있게 하는 일종의 같이 작업인 사이갈이의 기능도 있다. 따라서 김매기는 궁극적으로 작물이 최대 결실을 맺도록 최적의 생육 환경을 마련해 주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

시장을 관리하기 위한 동시전이 설치된 것은 신라 지증왕 10년인 509년의 일이다.

오답 해설>

- ① 상평통보가 화폐로 사용된 것은 조선 숙종 4년인 1678년의 일이다. 이후 상평통보는 전국으로 유통되기 시작하였다.
- ③ 관청에 물품을 조달하는 공인(貢人)이 등장한 것은 대동법이 시행된 17세기 이후(즉 조선 후기)의 일이다.
- ④ 보부상이 장시를 돌아다니며 상품을 판매한 것 역시 조선 후기의 일이다.
- ⑤ 국경 지대에서 개시 무역과 후시 무역이 이루어진 것도 조선 후기의 일이다. 청(淸)과의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국경 지대를 중심으로 공적으로 허용된 무역인 개시**와 사적인 무역인 후시**가 이루어졌다.

**특히 중강 개시와 책문 후시가 대청 무역의 교역 장소로 유명하였다. 중강 개시는 의주의 대안인 중강(압록강의 난자도)에서 열렸던 공무역(관무역)('개시 무역'이라 함)이었고, 책문 후시는 만주의 책문(만주 구련성과 봉황성의 중간에 위치)에서 이루어지던 사무역('후시 무역'이라 함)을 가리킨다. 그리고 의주를 중심으로 활약한 만상이 책문 후시를 통해 청과의 무역을 주도하였다.

27 - 경복궁

27. (가) 궁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가) 복원 기공식 대통령 연설문

임진왜란 때 (가) 은/는 불길 속에 휩싸여 흥선 대원군이 그 당시의 국력을 기울여 중건할 때까지 270년의 오랜 세월 동안 폐허로 남아 있었습니다. 일제는 1910년 우리나라를 병탄한 뒤 우리 역사의 맥을 끊기 위해 350여 채에 이르던 전각 대부분을 헐어내고 옮겼습니다. 국권의 상징이던 근정전을 가로막아 총독부 건물을 세웠습니다. 이제 우리가 궁을 복원하려는 것은 남에 의해 훼손된 민족사에 대한 긍지를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 ① 일제에 의해 동물원 등이 설치되었다.
- ② 제1차 미소 공동 위원회가 개최되었다.
- ③ 도성 내 서쪽에 있어 서궐이라고 불렸다.
- ④ 조선 물산 공진회 개최 장소로 이용되었다.
- ⑤ 태종이 도읍을 한양으로 다시 옮기며 건립하였다.

정답> ④

'(가) 복원 기공식 대통령 연설문'이라는 제목 아래 '임진왜란 때 (가)은/는 불길 속에 휩싸여 흥선 대원군이 그 당시의 국력을 기울여 중건할 때까지 270년의 오랜 세월 동안 폐허로 남아 있었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일제는 1910년 우리나라를 병탄한 뒤 우리 역사의 맥을 끊기 위해 350여 채에 이르던 전각 대부분을 헐어내고 옮겼습니다. 국권의 상징이던 근정전을 가로막아 총독부 건물을 세웠습니다. 이제 우리가 궁을 복원하려는 것은 남에 의해 훼손된 민족사에 대한 긍지를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가)'는 경복궁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경복궁 복원 기공식이 열린 것은 노태우 정부 시기인 1991년 6월의 일이다.

경복궁은 1915년 9월에 열린 조선 물산 공진회 개최 장소로 이용되었다(1915.9.11~10.30). 이때 경복궁의 일부 건물이 훼손되었다.

오답 해설>

- ① 일제에 의해 동물원 등이 설치된 궁궐은 창경궁이다. 창경궁의 처음 이름은 수강궁(壽康宮)으로, 1418년 왕위에 오른 세종이 생존한 상왕인 태종을 모시기 위해 지은 궁이다(사적 제123호). 창덕궁과 함께 동궐(東闕)로 불렸다. 순종 즉위 후 창경궁은 일제에 의하여 크게 훼손되었는데, 1909년(순종 3) 일제는 궁 안의 전각들을 헐어버리고 동물원과 식물원을 설치하였고, 궁원을 일본식으로 변모시켰다. 한일 병탄이 이루어진 직후인 1911년에는 창경궁을 창경원으로 격하시켰다.
- ② 제1차 미소 공동 위원회가 개최된 곳은 덕수궁 석조전이다(1946.3.20~5.9).
- ③ 도성 내 서쪽에 있어 서궐(西闕)이라고 불린 궁궐은 경희궁이다. 경희궁은 원래 경덕궁으로 불렸다. 처음 창건 때는 유사시에 왕이 본궁을 떠나 피우(避寓)하는 이궁(離宮)으로 지어졌으나 궁의 규모가 크고 여러 임금이 이 궁에서 정사를 보았기 때문에 중요시되었다. 영조 때 궁명을 경희궁으로 고쳤다.
- ⑤ 태종이 도읍을 한양으로 다시 옮기며 건립한 궁궐은 창덕궁(昌德宮)이다(1405, 태종 5). 창덕궁은 경복궁 동쪽 향교동에 새로 지은 궁궐로, 돈화문이 정문이고 인정전이 정전(正殿)*이다. 창덕궁은 조선의 역대 왕들이 가장 많이 머문 궁궐이기도 하다. 임진왜란 때 다른 궁과 더불어 잿더미로 변하였으나 광해군 원년(1609)에 인정전 등 주요 전각이 복구되었다.

*정전: 임금이 정사를 돌보던 곳(건물)

28 - 신미양요

28. 다음 장면에서 나타난 사건이 끼친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 ① 이용태가 안핵사로 파견되었다.
- ② 이원익이 대동법 시행을 건의하였다.
- ③ 정약종 등이 희생된 신유박해가 일어났다.
- ④ 로저스 제독이 이끄는 미군이 강화도에 침입하였다.
- ⑤ 황사영이 외국 군대의 출병을 요청하는 백서를 작성하였다.

정답> ④

왼쪽 말풍선에 '평양부 방수성 앞 물가에 큰 이양선 한 척이 머무르다가 끝내 물러가지 않으며 상선을 약탈하고 총을 쏘 백성들을 살상하였습니다. 이에 평안 감사 박규수가 관심을 이끌고 공격하여 불태웠다고 합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고종 3년인 1866년 7월에 일어난 이른바 '제너럴 셔먼호 사건'을 가리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사건은 이후 미국의 아시아 함대 사령관인 존 로저스 제독(1812~1888)이 이끄는 미군이 강화도에 침입하는, 이른바 신미양요가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다(1871.5, 고종 8).

오답 해설>

- ① 고부 농민 봉기의 수습을 위해 안핵사 이용태(1854~1922)가 파견된 것은 1894년 3월의 일이다. 하지만 잘못된 일처리로 동학 농민군의 원성을 사 결국 동학 농민군의 제1차 봉기를 유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 ② 오리 이원익(1547~1634)(당시 영의정)이 대동법 시행을 건의한 것은 광해군 즉위년인 1608년의 일이다.
- ③ [다산 정약용(1762~1836)의 셋째 형인] 정약종(1760~1801) 등이 희생된 신유박해가 일어난 것은 순조 원년인 1801년의 일이다.
- ⑤ 황사영(1775~1801)이 외국 군대의 출병을 요청하는 백서를 작성한 후 갖고 있다 체포된 것은 순조 원년인 1801년 9월의 일이다(황사영 백서 사건). 1801년 1월부터 시작된 신유박해를 피해 충청도 제천의 배론이라는 토기 굽는 마을로 피신하여 토굴에 숨어 지낸 황사영은 박해의 경과와 재건축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길이 62cm, 너비 38cm의 흰 비단에다 총 122행, 도합 12,384자를 검은 먹글씨로 깨알같이 썼으며, 이를 북경의 구베아 주교(?~1808)에게 전달하고자 하였다.*

*황사영 백서 내용: 구체적으로는 1785년(정조 9) 이후의 조선 교회의 사정과 박해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한 다음, 신유박해의 상세한 전개 과정과 순교자들의 간단한 약전을 적었다. 그리고 주문모 신부의 활동과 자수, 그의 죽음에 대하여 증언하였다. 끝으로, 폐허가 된 조선 교회를 재건하고 신앙의 자유를 획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29 - 갑신정변 이후에 전개된 사실

29. 다음 사건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홍영식이 우정국에서 개업식을 명목으로 연회를 열어 세인들이 독립당이라고 칭하는 사람들과 각국 사관(使官) 등을 초대하였다. 연회가 끝날 무렵에 우정국 옆에서 불이 일어났다. …… 마침내 어젯밤의 사변에 따라 독립당이 정권을 획득하였다. 조보(朝報)에서는 새롭게 관리를 임명하겠다는 취지를 포고하였다. 박영효, 김옥균, 서광범은 승지가 되었고, 김옥균은 해상공국 당상을 겸하였다.

- 「조난기사」 -

- ① 한성 조약이 체결되었다.
- ② 신식 군대인 별기군이 창설되었다.
- ③ 김윤식이 청에 영선사로 파견되었다.
- ④ 일본 군함 운요호가 영종도를 공격하였다.
- ⑤ 개화 정책을 총괄하는 통리기무아문이 설치되었다.

정답> ①

'홍영식이 우정국에서 개업식을 명목으로 연회를 열어 세인들이 독립당이라고 칭하는 사람들과 각국 사관(使官) 등을 초대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연회가 끝날 무렵에 우정국 옆에서 불이 일어났다. …… 마침내 어젯밤의 사변에 따라 독립당이 정권을 획득하였다. 조보(朝報)에서는 새롭게 관리를 임명하겠다는 취지를 포고하였다. 박영효, 김옥균, 서광범은 승지가 되었고, 김옥균은 해상공국 당상을 겸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출처는 한성순보 발간에 참여하고 있던 한 일본인의 체험기인 「조난기사」(필사본)로, 이상을 통해 주어진 자료 속 사건은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회를 이용하여 급진 개화파 주도로 일어난 갑신정변을 가리키는 것임을 알 수 있다[1884.10.17~19(음력)/1884.12.4~6(양력)].

갑신정변의 사후 처리를 위해 조선과 일본은 한성 조약을 체결하였다(1885.1). 참고로 청과 일본은 같은 해 4월에 텐진 조약을 체결하였다(1885.4).

오답 해설>

- ② 신식 군대인 별기군[교련병대]이 창설된 것은 고종 18년인 1881년 4월의 일이다.
- ③ 온건 개화파인 윤양 김윤식(1835~1922)이 청에 영선사로 파견된 것은 고종 18년인 1881년 9월의 일이다(~1882.11). 이듬해 6월에 발발한 임오군란의 여파로 조기 귀국하였으나 이를 계기로 기기창(근대적 무기 제조 공장)이 설립되었다(1883.3).
- ④ 일본 군함 운요호가 (강화도와) 영종도를 공격한 것은 고종 12년인 1875년 9월의 일이다(일본의 포함 외교). 강화도 조약 체결의 빌미가 되었다.
- ⑤ 개화 정책을 총괄하는 통리기무아문이 설치된 것은 고종 17년인 1880년 12월의 일이다.

30 - 단재 신채호

[30~31] 다음 자료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고대 여러 나라들도 역시 각각 사관(史官)을 두어 일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맹자께서 이르시기를, “진(晉)의 승(乘)과 초(楚)의 도올(櫛杓)과 노(魯)의 춘추(春秋)는 모두 한가지다.”라고 하셨습니다. 생각건대 우리 해동(海東) 삼국도 역사가 길고 오래되어 마땅히 그 사실이 책으로 기록되어야 하므로 폐하께서 이 늙은 신하에게 명하시어 편집하도록 하셨습니다. …… 신의 학술이 이처럼 부족하고 얕으며, 옛말과 지나간 일은 이처럼 아득하고 희미합니다. 그러므로 온 정신과 힘을 다 쏟아 부어 겨우 ㉠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보잘것 없기에 스스로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나) 고려가 끝내 발해사를 편찬하지 않아 토문강 북쪽과 압록강 서쪽이 누구의 땅인지 알 수 없게 되었다. 여진을 책망하려 하여도 할 말이 없고, 거란을 책망하려 하여도 할 말이 없다. 고려가 약한 나라가 된 것은 발해의 땅을 차지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 탄식할 수밖에 없다. …… 내가 내규장각 관리로 있으면서 비밀스런 책(秘書)을 꽤 많이 읽었으므로 발해에 관한 일을 차례로 편찬하여, 군고(君考)·신고(臣考)·지리고(地理考)·직관고(職官考)·의장고(儀章考)·물산고(物産考)·국어고(國語考)·국서고(國書考)·속국고(屬國考) 등 9편으로 구성된 ㉡ 책을 만들었다.

(다) 역사란 무엇인가? 인류 사회의 아(我)와 비아(非我)의 투쟁이 시간부터 발전하며 공간부터 확대하는 정신적 활동 상태의 기록이니, 세계사라 하면 세계 인류가 그리되어 온 상태의 기록이며, 조선 역사라 하면 조선 민족이 그리되어 온 상태의 기록인 것이다. 무엇을 '아'라 하며 무엇을 '비아'라 하는가? …… 무릇 주체적 위치에 선 자를 '아'라 하고, 그 외에는 '비아'라 하는데, 이를테면 조선 사람은 조선을 '아'라 하고, 영국·미국·프랑스·러시아 등을 '비아'라 하지만, 그들은 각기 제 나라를 '아'라 하고 조선을 '비아'라 하며, …… 그러므로 역사는 '아'와 '비아'의 투쟁의 기록인 것이다.

30. (가)~(다)를 작성한 인물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가) - 만권당에서 원의 학자들과 교류하였으며, 성리학의 보급에 기여하였다.
- ② (가) - 칠대실록의 편찬에 참여하였으며, 문헌공도를 만들어 사학을 진흥시켰다.
- ③ (나) - 금석학을 연구하여 북한산비가 진흥왕 순수비임을 고증하였다.
- ④ (다) - 한국통사를 저술하였고,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제2대 대통령을 역임하였다.
- ⑤ (다) - 대한매일신보의 주필로 활동하였으며, 폭력을 통한 민중의 직접 혁명을 주장하였다.

정답> ㉠

(가)에 '고대 여러 나라들도 역시 각각 사관(史官)을 두어 일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맹자께서 이르시기를, 진(晉)의 승(乘)과 초(楚)의 도올(櫛杓)과 노(魯)의 춘추(春秋)는 모두 한가지다라고 하셨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생각건대 우리 해동(海東) 삼국도 역사가 길고 오래되어 마땅히 그 사실이 책으로 기록되어야 하므로 폐하께서 이 늙은 신하에게 명하시어 편집하도록 하셨습니다. …… 신의 학술이 이처럼 부족하고 얕으며, 옛말과 지나간 일은 이처럼 아득하고 희미합니다. 그러므로 온 정신과 힘을 다 쏟아 부어 겨우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보잘것없기에 스스로 부끄러울 따름입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고려의 김부식(1075~1151)이 고려 인종에게 『삼국사기』를 편찬해 받치면서 올린 글이다(진삼국사기표)(1145, 고려 인종 23).

(나)에는 '고려가 끝내 발해사를 편찬하지 않아 토문강 북쪽과 압록강 서쪽이 누구의 땅인지 알 수 없게 되었다. 여진을 책망하려 하여도 할 말이 없고, 거란을 책망하려 하여도 할 말이 없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고려가 약한 나라가 된 것은 발해의 땅을 차지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 탄식할 수밖에 없다. …… 내가 내규장각 관리로 있으면서 비밀스런 책(秘書)을 꽤 많이 읽었으므로 발해에 관한 일을 차례로 편찬하여, 군고(君考)·신고(臣考)·지리고(地理考)·직관고(職官考)·의장고(儀章考)·물산고(物産考)·국어고(國語考)·국서고(國書考)·속국고(屬國考) 등 9편으로 구성된 책을 만들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영재 유득공(1748~1807)이 지은 『발해고』의 서문이다(1784, 조선 정조 8).

(다)에는 '역사란 무엇인가? 인류 사회의 아(我)와 비아(非我)의 투쟁이 시간부터 발전하며 공간부터 확대하는 정신적 활동 상태의 기록이니, 세계사라 하면 세계 인류가 그리되어 온 상태의 기록이며, 조선 역사라 하면 조선 민족이 그리되어 온 상태의 기록인 것이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무엇을 '아'라 하며 무엇을 '비아'라 하는가? …… 무릇 주체적 위치에 선 자를 '아'라 하고, 그 외에는 '비아'라 하는데, 이를테면 조선 사람은 조선을 '아'라 하고, 영국·미국·프랑스·러시아 등을 '비아'라 하지만, 그들은 각기 제 나라를 '아'라 하고 조선을 '비아'라 하며, …… 그러므로 역사는 '아'와 '비아'의 투쟁의 기록인 것이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역사는 아(我)와 비아(非我)의 투쟁의 기록'이라는 유명한 문장을 통해 주어진 자료는 단재 신채호(1880~1936)의 『조선상고사』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 『조선상고사』는 신채호가 우리나라의 상고 시대의 역사를 서술한 책으로 단군 시대에서부터 삼국 시대 백제의 멸망과 그 부흥 운동까지를 다루었다. 1931년 6월부터 10월까지 조선일보 학예란에 연재되었으며, 신채호 사후인 1948년에 이르러서야 단행본으로 출간되었다. 본래 이 책은 신채호가 '조선사' 서술의 한 부분이었는데, 연재가 상고사 부분에서 끝났기 때문에 『조선상고사(朝鮮上古史)』로 불리게 되었다.

신채호는 1905년 말~1906년 초경에 총무 운강 양기탁(1871~1938)의 천거로 대한매일신보 논설 기자로 옮겨와 일하다 주필로 활동하였으며, 1923년 1월에는 중국 상하이에서 의열단장 김원봉(1898~1958)의 요청으로 폭력을 통한 민중의 직접 혁명을 주장한 조선 혁명 선언을 집필하였다.

오답 해설>

① (일종의 독서당인) 만권당에서 원의 학자들과 교류하였으며, 성리학의 보급에 기여한 인물은 익재(역용) 이제현(1287~1367)이다(1314, 고려 충숙왕 원년).

② 칠대실록*의 편찬에 참여하였으며, 문헌공도[9재 학당]를 만들어 사학을 진흥시킨 인물은 고려의 문신 최충(984~1068)이다(1055, 고려 문종 9).

*칠대실록: 고려 태조부터 목종에 이르기까지 7대에 걸친 실록이다. 고려 현종 2년(1011) 거란의 침입으로 궁궐 안에 있던 사관(史館)이 불타, 이곳에 보존된 사료들도 모두 소실되었다. 이에 따라 현종은 재위 4년인 1013년에 수찬관(修撰官) 황주량·최충·윤징고 등에게 그의 앞 대(代)까지의 7대, 즉 태조·혜종·정종·광종·경종·성종·목종의 실록을 편찬하도록 명하였다. 명을 받은 편수관들은 널리 사료를 수집하고, 옛 사실을 알고 있는 고로(古老)들을 탐방 취재하여 덕종 3년(1034)에 완성하였다. 하지만 고려 최초의 이 칠대실록은 다른 고려 실록과 함께 임진왜란 때 소실되었다(추정).

<17쪽 31번 아래 추가 해설>

31 - 삼국사기

31. 밑줄 그은 ㉠, ㉡에 해당하는 역사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 - 불교사를 중심으로 고대의 민간 설화를 수록하였다.
- ② ㉠ - 본기, 연표, 잡지, 열전 등으로 구성된 기전체 사서이다.
- ③ ㉡ - 사초와 시정기 등을 바탕으로 편찬하였다.
- ④ ㉡ - 고구려 건국 시조의 일대기를 서사시로 표현하였다.
- ⑤ ㉠, ㉡ - 우리 역사의 시작을 단군 조선으로 삼았다.

정답> ②

『삼국사기』는 본기, 연표, 잡지, 열전 등으로 구성된 기전체(사서이다(1145, 고려 인종 23)). 『삼국사기』는 본기 28권, 연표 3권, 지(志) 9권, 열전 10권으로 구성되었다[30번에서 밝혔듯이 ㉠은 『삼국사기』, ㉡은 『발해고』].

*기전체: 역사적 사실을 서술할 때 본기(本紀)·세가(世家)·열전(列傳)·지(志)·연표(年表) 등으로 구성하는 역사 서술 체제를 가리킨다(가장 중요한 '기'와 '전'의 이름을 따서 기전체라 함). 중국 전한의 역사가 사마천(기원전 145?~기원전 86?)이 쓴 『사기(史記)』에서 비롯되었다(중국 역대 왕조의 정사를 서술하는 기본 체제가 됨). '기(紀)'는 제왕의 정치와 행적을 중심으로 역대 왕조의 변천을 편년체로 서술한 것이고, '세가(世家)'는 제후국의 역사를 편년체로 기록한 것이다. 또 '전(傳)'은 열전으로 각 시대를 풍미했던 다양한 인물들에 대한 기록이고, '지(志)'는 제례나 천문, 경제, 법률 등 문물과 제도에 관해 항목별로 연혁과 변천을 기록한 일종의 문화사나 제도사이다. 마지막으로 '표(表)'는 각 시대의 역사적 흐름을 연표로 간략히 나타낸 것이다.

오답 해설>

- ① 불교사를 중심으로 고대의 민간 설화를 수록한 역사서는 보각국사 일연(1206~1289)이 지은 『삼국유사』이다(1285, 고려 충렬왕 11). 『삼국유사』는 왕력편, 기이편, 흥법편 등 5권 9편으로 구성되어 있고, 불교 중심의 역사적 사실을 비롯한 민간 설화가 수록되어 있다.
- ③ 사초와 시정기를 바탕으로 (실록청에서) 편찬된 역사서는 조선왕조실록이다.
- ④ 고구려 건국 시조의 일대기를 (장편) 서사시로 표현된 역사서는 『동국이상국집』에 실려 있는 이규보(1168~1241)의 「동명왕편」이다(1193, 고려 명종 23).
- ⑤ 우리 역사의 시작을 단군 조선[고조선]으로 삼은 역사서는 많지만 대표적인 것은 사가정 서거정(1420~1488) 등이 편찬한 『동국통감』과 순암 안정복(1712~1791)이 지은 『동사강목』을 들 수 있다[각 1485(조선 성종 16)/1778(조선 정조 2)]. 『동국통감』은 단군 조선[고조선]부터 고려 말까지의 역사를 다룬 통사이자 편년체 사서이고, 『동사강목』 역시 단군 조선[고조선]에서 고려 공양왕[고려 말]까지를 다룬 통사이자 강목체 형식의 편년체 사서이다(정통 국가, 정통 군주를 구별하여 서술).

<30번 오답 해설>

- ③ 금석학을 연구하여 북한산비가 진흥왕 순수비임을 고증한 인물은 추사 김정희(1786~1856)이다(1852, 철종 3).
- ④ 한국통사를 저술하였고,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제2대 대통령을 역임한 인물은 백암 박은식(1859~1925)이다(각 1915.6/1925.3).

32 - 동학

32. (가) 종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점]

(가)의 교세를 확장한 해월 최시형



해월 선생은 제자들에게 '최보따리'라고도 불렸다. 포교를 위해 잠행을 하면서 보따리를 자주 썼기 때문에 붙여진 별명이다. 교조 최제우의 처형으로 위촉되었던 (가)의 교세는 2대 교주였던 그의 노력으로 크게 확장되었다. 그는 1897년 손병희에게 도통을 전수하였고 1898년 체포되어 재판을 받고 처형되었다. 그에게 사형을 선고한 판사 중에는 고부 학정의 원흉 조병갑이 있었다.

- ① 동경대전을 경전으로 삼았다.
- ② 항일 무장 단체인 중광단을 결성하였다.
- ③ 박중빈을 중심으로 새생활 운동을 펼쳤다.
- ④ 배재 학당을 세워 신학문 보급에 앞장섰다.
- ⑤ 프랑스와의 조약을 통해 포교가 허용되었다.

정답> ①

'(가)의 교세를 확장한 해월 최시형'이라는 제목 아래 '해월 선생은 제자들에게 최보따리라고도 불렸다. 포교를 위해 잠행을 하면서 보따리를 자주 썼기 때문에 붙여진 별명이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교조 최제우의 처형으로 위촉되었던 (가)의 교세는 2대 교주였던 그의 노력으로 크게 확장되었다. 그는 1897년 손병희에게 도통을 전수하였고 1898년 체포되어 재판을 받고 처형되었다. 그에게 사형을 선고한 판사 중에는 고부 학정의 원흉 조병갑이 있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가)'는 동학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동경대전은 동학의 경전으로 1880년(고종 17)에, 용담유사는 동학의 포교가사집으로 1881년(고종 18)에 간행되었다. 동학은 이후 제3대 교조, 의암 손병희(1861~1922)에 의해 천도교로 명칭을 바꾸었다(1905).

오답 해설>

- ② 항일 무장 단체인 중광단을 결성한 종교는 대종교이다. 중광단은 북간도[동만주] 지역(왕청)에서 결성되었다(1911.3). 1919년에 이르러 대한 군정회, 대한 군정부로 개편하다가 같은 해 12월에 대한 군정서[북로 군정서]로 다시 개편되었다.
- ③ (교조인) 박중빈(1891~1943)을 중심으로 새생활 운동(과 간척 사업)을 펼친 종교는 원불교이다(1916.4)(1918~1919 간척 사업).
- ④ 배재 학당을 세워 신학문 보급에 앞장선 종교는 개신교[감리교]이다. 배재 학당은 미국 북감리교 선교사인 아펜젤러(1858~1902)가 서울에 세운 근대식 중등 교육 기관이다(1885.8).
- ⑤ 프랑스와의 조약을 통해 포교가 허용된 종교는 천주교이다. 천주교는 천주를 믿는 종교라는 뜻으로, 가톨릭을 가리킨다. 17세기 서학으로 처음 소개되었다가 18세기 후반에 이르러 남인 실학자들 사이에서 '신앙'으로 받아들여졌다. 제사와 신주를 모시는 문제로 정부의 탄압을 받았으며, 고종 23년인 1868년에 맺은 조불 수호 통상 조약으로 말미암아 포교의 자유가 사실상 허용되었다(조약에서 직접 규정하지는 않음).

33 - 보안회

33.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각국 공관에 보내는 호소문

지금 일본 공사가 우리 외부(外部)에 공문을 보내어 산림, 천택(川澤), 들판, 황무지에 대한 권리를 청구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를 이용해 2~3년 걸쳐 윤작을 해야만 먹고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를 외국인에게 주어버린다면 전국의 강토를 모두 빼앗기게 되며 수많은 사람이 참혹한 빈곤에 빠져 구제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일본인들의 침략을 막고 우리 강토를 보전하도록 힘써 주십시오.

1904년 ○○월 ○○일

- ① 독립문의 건립 과정을 알아본다.
- ② 보안회의 활동 내용을 파악한다.
- ③ 조일 통상 장정의 조항을 검토한다.
- ④ 화폐 정리 사업이 끼친 영향을 살펴본다.
- ⑤ 황국 중앙 총상회가 조직된 목적을 분석한다.

정답> ②

'각국 공관에 보내는 호소문'이라는 제목 아래 '지금 일본 공사가 우리 외부(外部)에 공문을 보내어 산림, 천택(川澤), 들판, 황무지에 대한 권리를 청구하였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를 이용해 2~3년 걸쳐 윤작을 해야만 먹고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를 외국인에게 주어버린다면 전국의 강토를 모두 빼앗기게 되며 수많은 사람이 참혹한 빈곤에 빠져 구제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일본인들의 침략을 막고 우리 강토를 보전하도록 힘써 주십시오'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마지막으로 해당 호소문을 발표한 연도가 '1904년'으로 되어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호소문은 일본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에 대항하기 위하여 서울에서 조직된 항일 단체인 보안회와 관련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1904.7.13). 보민회(保民會)라고도 불렀다.

오답 해설>

- ① 독립문이 건립된 것은 광무 원년[고종 34년]인 1897년 11월의 일이다(1897.11.20)(사적 제32호). 왕실과 국민의 성금을 모아 중국 사신을 맞이하던 영은문 자리 부근에 세웠다.
- ③ 조일 통상 장정이 체결된 것은 고종 20년인 1883년 7월의 일이다.
- ④ [재정 고문으로 온 메가타 다네타로(1853~1926)의 주도로] 화폐 정리 사업이 시작된 것은 1905년 7월의 일이다(~1909.12).
- ⑤ (상권 수호를 목적으로 한) 황국 중앙 총상회가 조직된 것은 광무 2년[고종 35]인 1898년 7월의 일이다.

34 - 을미사변

34. 다음 상황의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근일에 의병을 일으킨 이들이 각처에 글을 보내어 말하기를, "정부에 변란이 자주 나고 각처에 도적이 일어나며 대군주 폐하께서 외국 공사관에 파견하여 환궁하실 기약이 없고 일본 사람들이 조선 인민을 어지럽게 하는 고로, 의병을 일으켜 서울에 올라와 궁궐을 지키고 대군주 폐하를 환궁하시게 한다."라고 하였다.

- ① 을미사변이 일어났다.
- ② 을사늑약이 체결되었다.
- ③ 용암포 사건이 발생하였다.
- ④ 헤이그에 특사가 파견되었다.
- ⑤ 대한 제국의 군대가 해산되었다.

정답>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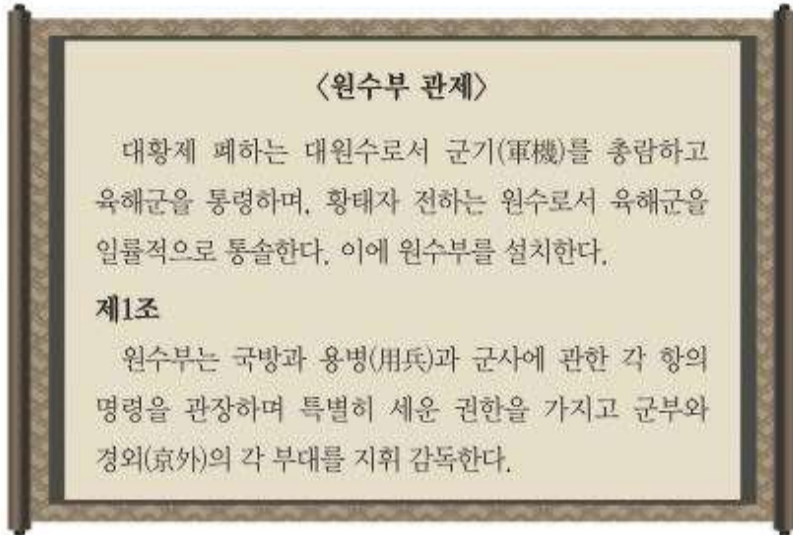
'근일에 의병을 일으킨 이들이 각처에 글을 보내어 말하기를, 정부에 변란이 자주 나고 각처에 도적이 일어나며 대군주 폐하께서 외국 공사관에 파견하여 환궁하실 기약이 없고 일본 사람들이 조선 인민을 어지럽게 하는 고로, 의병을 일으켜 서울로 올라와 궁궐을 지키고 대군주 폐하를 환궁하시게 한다'라고 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독립신문』 1896년 4월 23일자 논설로, 존왕양이(尊王攘夷), 복수보형(復讐保形) 등의 명분을 내세우며 거의한 을미의병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다. 윤문이 되었는데 사료 본문에는 '~ 일본 사람들이 조선을 돕지는 아니하고 도리어 국모를 해하며 조선 인민을 어지럽게 하는 고로, ~'로 되어 있다. 명성 황후(1851~1895)가 고종 32년이자 을미년인 1895년 10월 8일(음력으로는 8월 20일)에 시해된 을미사변은, 을미의병이 일어나게 된 강력한 계기[배경] 중의 하나이다.

오답 해설>

- ② 을사늑약, 즉 제2차 한일 협약이 강요된 것은 1905년 11월의 일이다(1905.11.17).
- ③ 용암포 사건이 발생한 것은 1903년 7월의 일이다. 러시아는 1903년 4월에 용암포와 압록강 하구를 점령하였으며 같은 해 7월에 용암포에 대한 조차를 요구하였다. 용암포는 평안북도 용천의 압록강 하구에 위치한 하항[부두]이다.
- ④ (네덜란드) 헤이그에 특사가 파견된 것은 1907년 4월경의 일이다. 같은 해 6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제2차 만국 평화회의를 겨냥하여 고종이 을사늑약의 불법성을 폭로하기 위해 특사를 파견한 것이다(헤이그 특사 사건)[헤이그 회의가 개최된 것은 6월 15일(~10월 18일까지 개최)]. 이상설, 이준, 이위종 3인의 특사가 헤이그에 도착한 것은 회의가 이미 시작된 직후인 6월 25일이며, 특사들은 7월까지 활동하였다(7월 14일 이준 열사 순국).
- ⑤ 대한 제국의 군대가 해산된 것은 1907년 8월 1일로, 이는 같은 해 7월 24일에 강요된 한일 신협약(정미 7조약)의 부수 비밀각서에 따른 것이었다. 대한 제국 군대가 해산되자 당시 시위대 제1대대장이었던 박승환(1869~1907)이 그에 항거하여 자결하고, 소속 부대원들은 일본군에 저항하였다.

35 - 원수부 관제 반포 이후의 사실

35. 다음 관제가 반포된 이후의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 ① 지계아문이 설치되었다.
- ② 군국기무처가 창설되었다.
- ③ 5군영이 2영으로 통합되었다.
- ④ 한성 사범 학교가 설립되었다.
- ⑤ 건양이라는 연호가 제정되었다.

정답> ①

'원수부 관제'라는 제목 아래 '대황제 폐하는 대원수로서 군기(軍機)*를 총람*하고 육해군을 통령하며, 황태자 전하는 원수로서 육해군을 일률적으로 통솔한다. 이에 원수부를 설치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제1조로 '원수부는 국방과 용병(用兵)과 군사에 관한 각 항의 명령을 관장하며 특별히 세운 권한을 가지고 군부와 경외(京外)의 각 부대를 지휘 감독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대한 제국 시기 황제 직속의 원수부가 설치된 것은 광무 3년 [고종 36]인 1899년 6월의 일이다(1899.6.2)~1904.9).

*군기(軍機)는 군사상의 기밀을 뜻하고, 총람(總攬)은 모든 일을 한데 묶어 관할한다는 뜻이다.

지계아문이 설치된 것은 1901년 10월의 일이다(~1904.4).

오답 해설>

- ② (제1차 갑오개혁을 이끈 최고 정책 결정 기구인) 군국기무처가 창설된 것은 고종 31년인 1894년 6월의 일이다(1894.6.25.~12.17).
- ③ (군제를 개편하여) 5군영을 2영(무위영, 장어영)으로 통합한 것은 고종 18년인 1881년 11월의 일이다.
- ④ (1895년 2월의 교육입국 조서 반포를 계기로) 한성 사범 학교가 설립된 것은 고종 32년인 1895년 4월의 일이다[한성 사범 학교 관제(칙령 제79호) 반포]. 참고로 같은 해 5월에는 한성 외국어 학교도 설립되었다.
- ⑤ 건양이라는 (독자적인) 연호가 제정된 것은 을미개혁 때의 일이다(1895.8-1896.2). 1895년 음력 11월 17일을 양력 1896년 1월 1일로 정하면서 연호를 건양(建陽)으로 정하였다(~1897년 8월 16일까지 사용).

36 - 한국 독립군

36. (가) 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남대관, 권수정 등은 전 한족총연합회 간부였던 지청천, 신숙 등과 함께 아성현(阿城縣)에서 한국대독립당을 조직하고 지청천을 총사령, 남대관을 부사령으로 하는 (가)을/를 편성하였다. (가)은/는 덩차오(丁超)의 군으로부터 무기를 지급받고 대원을 모집하여 일본 측 기관의 파괴, 일본 요인의 암살 등을 기도하였다.

- ① 청산리에서 일본군을 크게 격파하였다.
- ② 미군과 연계하여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하였다.
- ③ 대전자령 전투에서 일본군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었다.
- ④ 중국 관내(關內)에서 결성된 최초의 한인 무장 부대였다.
- ⑤ 대한 국민회군 등과 연합하여 봉오동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정답> ③

'남대관, 권수정 등은 전 한족총연합회 간부였던 지청천, 신숙 등과 함께 아성현(阿城縣)에서 한국대독립당을 조직하고 지청천을 총사령, 남대관을 부사령으로 하는 (가)을/를 편성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후 '(가)은/는 덩차오(丁超)의 군으로부터 무기를 지급받고 대원을 모집하여 일본 측 기관의 파괴, 일본 요인의 암살 등을 기도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가)'는 백산 지청천(1888~1957)이 이끈 한국 독립당 소속의 한국 독립군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1931.10).

대전자령 전투는 한국 독립군(총사령 지청천)이 대전자령에서 중국 호로군과 연합하여 일본군을 격파한 전투이다(1933.7)(한·중 연합 작전). 대전자령은 중국 지린성 왕청현에 위치한다. 대전자령 전투는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와 함께 우리나라 항일 무장 투쟁사 3대 대첩으로 평가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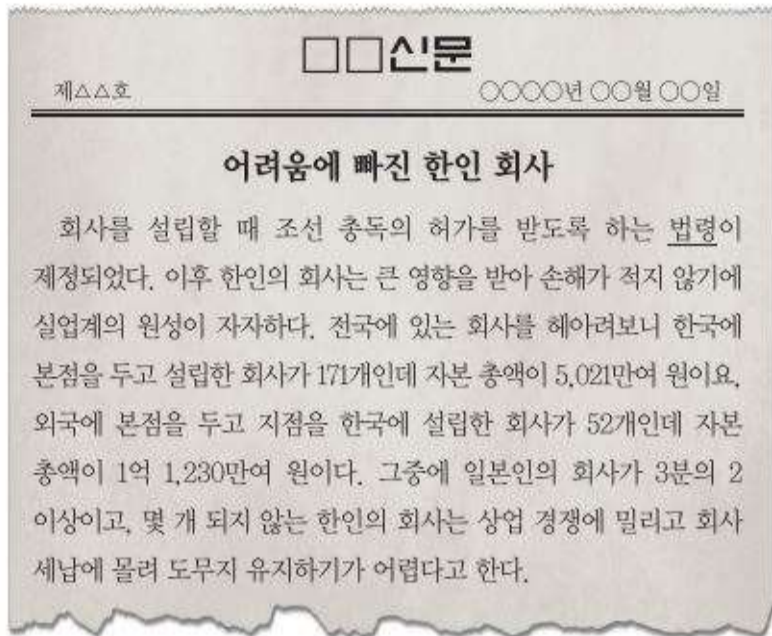
오답 해설>

- ① 청산리에서 일본군을 크게 격파한 부대는 북로 군정서군을 중심으로 한 독립군 연합 부대이다. 1920년 10월 21일부터 26일까지 일주일 동안 청산리 계곡의 백운평 전투를 시작으로 천수평, 완루구, 어랑촌, 고등하 등지에서 대소 10여 차례 교전하여 일본군을 대파하였다. 보통 '청산리 대첩'이라고 한다.
- ② 미군과 연계하여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한 부대는 한국 광복군이다. 한국 광복군은 1945년 초부터 미국 전략 사무국(OSS, Office of Strategic Service)의 도움을 받아 1945년 8월 18일 수도 서울 탈환을 목표로 한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하였다(같은 해 3월 국내 정진군 총사령부 조직). 하지만 동년 8월 15일 일제의 무조건 항복으로 작전이 무산되고 말았다.
- ④ 중국 관내(關內)*에서 결성된 최초의 한인 무장 부대는 조선 의용대이다. 1938년 10월 중국 관내인 후베이성 우한의 한커우[한구]**에서 조직되었다(1939.10.10). *관내(關內)를 관중(關中)이라고도 하는데, 보통 중국 본토 지역을 가리킨다(만주, 즉 동북 3성은 관외). 예전 진(秦)나라 때 수도인 장안 일대 주변에 4개의 관문을 설치한 것에서 연유한다. **우한은 중국 후베이성[호북성]의 성도(省都)이다(중국어 명칭임). 그리고 우한[武漢]은 우창(武昌), 한커우(漢口), 한양(漢陽)의 세 도시를 함께 일컫는 이름이기도 하다(1949년에 합쳐짐).
- ⑤ 대한 국민회군, 군무 도독부 등과 연합하여 봉오동 전투에서 승리한 부대는 흥범도가 이끈 대한 독립군이다(1920.6.7). 이들 독립군 연합 부대는 만주 지린성 왕청현 봉오동에서 일본군 제19사단의 월강 추격 대대를 크게 격파하였다.

37 - 1910년대 일제의 정책

37. 밑줄 그은 '법령'이 시행된 시기 일제의 정책으로 옳은 것은?

[1점]



- ① 신문지법을 제정하였다.
- ② 미쓰야 협정을 체결하였다.
- ③ 토지 조사 사업을 실시하였다.
- ④ 경성 제국 대학을 설립하였다.
- ⑤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을 시행하였다.

정답> ③

'어려움에 빠진 한인 회사'라는 제목 아래 '회사를 설립할 때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법령이 제정되었다. 이후 한인의 회사는 큰 영향을 받아 손해가 적지 않기에 실업계의 원성이 자자하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전국에 있는 회사를 헤아려보니 한국에 본점을 두고 설립한 회사가 171개인데 자본 총액이 5,021만여 원이요, 외국에 본점을 두고 지점을 한국에 설립한 회사가 52개인데 자본 총액이 1억 1,230만여 원이다. 그중에 일본인의 회사가 3분의 2 이상이고, 몇 개 되지 않는 한인의 회사는 상업 경쟁에 밀리고 회사 세납에 몰려 도무지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회사 설립 시 총독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허가제' 회사령이 공포된 것은 1910년 12월의 일이다. 이후 1920년 4월에 이르러 '신고제[계출제] 회사령'으로 바뀌었다(역으로 일본 자본과 회사의 진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

토지 조사 사업을 시시한 것은 1910년대, 즉 '무단 통치기' 때의 일이다(1910~1918, 1912년 8월 토지 조사령 공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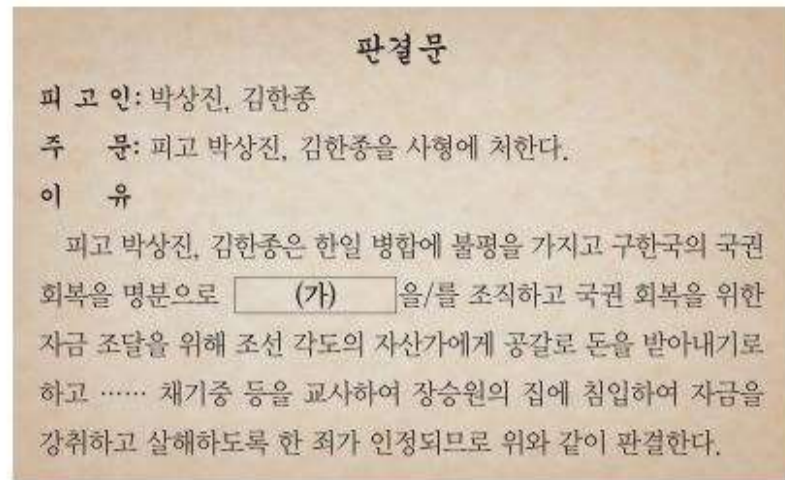
오답 해설>

- ① 신문지법을 제정한 것은 1907년(광무 11) 7월의 일이다(1907.7.24) (광무신문지법)(이완용 내각의 제1호 법률).
- ② (만주 군벌과 일제 사이에) 미쓰야 협정이 체결된 것은 1925년 6월의 일이다(1925.6.11). 미쓰야 협정이란 조선 총독부 경무국장 미쓰야 미야마쓰(1880~1959)와 중국 동삼성[만주]의 군벌인 장쥘린(1873~1928) 사이에 체결된 협약으로, 만주에서 한국인 독립운동가를 체포하면 이를 반드시 일본 영사관에 넘길 것을 규정하였다(독립군 탄압).
- ④ 경성 제국 대학이 설립된 것은 1924년의 일이다. 이때는 중등학교 졸업자를 대상으로 2년제 예과를 설치한 것이고, 2년 뒤인 1926년에 본과(3년제 법문학부와 4년제 의학부)를 설치하였다. 총장에는 조선 총독부 정무총감이 취임하였다.
- ⑤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을 시행한 것은 1941년 3월의 일이다(1941.3.10). 1941년 2월에 조선 총독부 제령 제8호로 제정·공포되었으며 같은 해 3월 10일부터 시행되었다. 치안 유지법을 위반하여 처벌 받은 사람(사상범)들에게 적용되었는데, 재범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예방의 목적으로 감옥에 계속해서(기간 갱신) 가둘 수 있도록 허용한 악법이다.

38 - 대한 광복회

38. (가)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중일 전쟁 발발 직후에 결성되었다.
- ② 군대식 조직을 갖춘 비밀 결사였다.
- ③ 파리 강화 회의에 대표를 파견하였다.
- ④ 일제가 꾸며낸 105인 사건으로 와해되었다.
- ⑤ 만민 공동회를 열어 열강의 이권 침탈을 비판하였다.

정답> ②

판결문으로 피고인이 '박상진, 김한중'이고, 주문으로 '피고 박상진, 김한중을 사형에 처한다'로 나와 있다. 이어 이유로 '피고 박상진, 김한중은 한일 병합에 불평을 가지고 구한국의 국권 회복을 명분으로 (가)을/를 조직하고 국권 회복을 위한 자금 조달을 위해 조선 각도의 자산가에게 공갈로 돈을 받아내기로 하고 …… *채기중 등을 교사하여 **장승원의 집에 침입하여 자금을 강취하고 살해하도록 한 죄가 인정되므로 위와 같이 판결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가) 단체'는 1915년 7월 대구에서 광복단과 조선 국권 회복단의 일부 인사가 통합하여 비밀리에 결성한 대한 광복회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1918.1). 의병장 허위(1854~1908)의 문하인 박상진((1884~1921)을 주축으로 하였으며(박상진 총사령, 김한중(1883~1921)은 충청도 지부장), 국권 회복과 공화정체의 국민 국가 수립을 목표로 삼았다. 1918년 1월에 전국의 조직망이 발각되었으며, 체포된 박상진과 김한중은 사형 선고를 받고 1921년 8월 대구 형무소에서 순국하였다. 대한 광복회 조직원 일부는 조직 와해 후 만주로 망명하여 의열단 등에 가담하여 독립운동을 계속하였다.

*채기중(1873~1921): 1913년 정월 경북 풍기(현 경북 영주시 풍기읍)에서 (대한)광복단(풍기 광복단) 조직을 주도하였고, 이어 1915년 7월 대구에서 결성된 대한 광복회에 합류한 독립운동가이다. 친일 부호 장승업과 도고면장 박용하를 처단한 혐의로 체포되어 사형 선고를 받고 순국하였다.

**장승원(1853~1917): 미군정기에 수도 경찰청장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에는 초대 외무부장관을 지낸 창랑 장택상(1893~1969)의 부친이다.

대한 광복회는 군사금 모집, 친일 부호 처단, 독립군 양성 등의 활동을 펼쳤는데, 전국에 걸쳐 군대식 조직을 갖추었다.

오답 해설>

- ① 중일 전쟁이 발발한 것은 1937년 7월의 일이다(1938.7.7).
- ③ 파리 강화 회의에 대표를 파견한 단체는 (중국 상하이에서 결성된) 신한 청년당이다(1918.8). 우사 김규식(1881~1950)이 대표로 파리 강회 회의에 참석하여 독립 청원서를 제출하였다(1919.5.12). 참고로 파견 도중인 1919년 4월에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세워짐에 따라 김규식은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대표로도 위촉되었다.
- ④ 일제가 꾸며낸 105인 사건으로 와해된 단체는 신민회이다(1911.9).
- ⑤ 만민 공동회를 열어 열강의 이권 침탈을 비판한 단체는 독립 협회이다(1896.7~1899.12). 만민 공동회는 고종 35년인 1898년 3월에 처음 개최되어 연말인 12월까지 지속되었다.

39 - 3·1 운동

39. 밑줄 그은 '시위 운동'의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수신: 육군 대신
 발신: 조선 헌병대 사령관

오늘 1일 새벽 경성에서 조선 독립에 관한 선언서를 발견함. 위 선언서에는 천도교, 기독교 신도들의 서명이 있었는데, 이면에는 일본 및 조선의 학생들과 비밀리에 연락했을 가능성이 있어 수사 중. 오후 2시에 이르러 중학(中學) 정도의 학생 약 1,000명이 모이자, 민중이 이에 어울려 시내를 행진하고 시위 운동을 시작함. 지금 수배 중. 위 집단은 각 장소에서 한국 독립 만세를 외치나 난폭한 행동으로 나오지는 않아 매우 불온한 형세는 없음. 주모자를 체포하고 해산시킬 예정이고 선언서에 서명한 사람 대부분은 즉시 체포함.

- ① 간도 참변으로 민간인이 학살되었다.
- ② 상하이에서 국민 대표 회의가 개최되었다.
- ③ 언론사의 주도로 브나로드 운동이 전개되었다.
- ④ 조선 노동 총동맹과 조선 농민 총동맹이 결성되었다.
- ⑤ 도쿄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2·8 독립 선언서가 발표되었다.

정답> ⑤

수신이 '육군 대신'이고 발신이 '조선 헌병대 사령관'으로 되어 있다. '오늘 1일 새벽 경성에서 조선 독립에 관한 선언서를 발견함. 위 선언서에는 천도교, 기독교 신도들의 서명이 있었는데, 이면에는 일본 및 조선의 학생들과 비밀리에 연락했을 가능성이 있어 수사 중'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오후 2시에 이르러 중학(中學) 정도의 학생 약 1,000명이 모이자, 민중이 이에 어울려 시내를 행진하고 시위운동을 시작함. 지금 수배 중. 위 집단은 각 장소에서 한국 독립 만세를 외치나 난폭한 행동으로 나오지는 않아 매우 불온한 형세는 없음. 주모자를 체포하고 해산시킬 예정이고 선언서에 서명한 사람 대부분은 즉시 체포함'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밑줄 그은 '시위 운동'은 곧 1919년의 3·1 운동의 가리킴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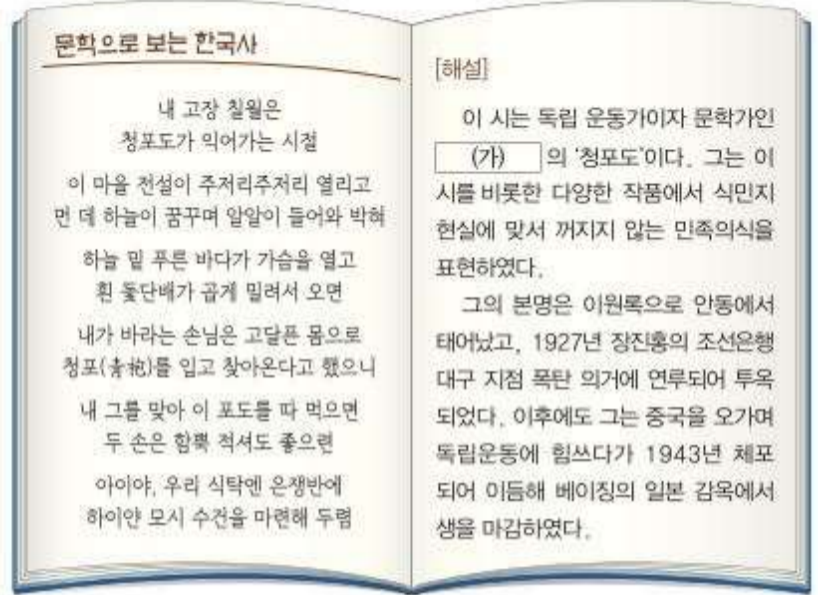
도쿄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2·8 독립 선언서가 (일본 도쿄에서) 발표된 것은 1919년 2월의 일이다(1919.2.8). 최팔용, 서춘, 백관수 등 제일 도쿄 유학생들이 조직한 (재일본 동경) 조선 청년 독립단이 이를 주도하였다(1918.12). 2·8 독립 선언은 3·1 운동을 촉발시킨 배경 중 하나이다.

오답 해설>

- ① 간도 참변으로 간도 지역의 민간인이 학살된 것은 1920년 10월의 일이다(~1921.4). 일본군은 봉오동 전투, 청산리 대첩에서의 패배에 대한 보복으로 간도에서 이 같은 만행을 저질렀다(1920년 이 경신년)이어서, '경신참변'이라고도 함.
- ②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상하이에서 국민 대표 회의가 개최된 것은 1923년 1월의 일이다(1923.1~6). 이후 74차례의 회의가 진행되었지만 창조파와 개조파가 극렬히 대립하다 결국 결렬되고 말았다.
- ③ 언론사(동아일보)의 주도로 (농촌 계몽을 위한) 브나로드 운동이 전개된 것은 1931년의 일이다(~1934).
- ④ 조선 노동 총동맹과 조선 농민 총동맹이 결성된 것은 1927년 9월의 일이다. 기존의 조선 노동 총동맹(1924.4)에서 조선 노동 총동맹과 조선 농민 총동맹으로 분리된 것이다.

40 - 이육사

40.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소설 상록수를 신문에 연재하였다.
- ② 광야, 절정 등의 저항시를 발표하였다.
- ③ 타이완에서 일본 육군 대장을 저격하였다.
- ④ 삼균주의를 바탕으로 한 건국 강령을 만들었다.
- ⑤ 여유당전서를 간행하고 조선학 운동을 전개하였다.

정답> ②

'문학으로 보는 한국사'라는 제목 아래 해설로 '이 시는 독립운동가이자 문학가인 (가)의 청포도*이다. 그는 이 시를 비롯한 다양한 작품에서 식민지 현실에 맞서 꺼지지 않는 민족의식을 표현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그의 본명은 이원록으로 안동에서 태어났고, 1927년 장진홍의 조선은행 대구 지점 폭탄 의거**에 연루되어 투옥되었다. 이후에도 그는 중국을 오가며 독립운동에 힘쓰다가 1943년 체포되어 이듬해 베이징의 일본 감옥에서 생을 마감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가) 인물'은 이육사(1904~1944)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 이육사는 '청포도'라는 시와 함께 일제의 압박에 항거한 '광야', '절정'이라는 시를 지었다(저항시의 백미라는 평을 받음).

*청포도: 내 고장 칠월은 /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주저리 열리고 / 먼 데 하늘이 꿈꾸며 알알이 들어와 박혀 / 하늘 밑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 흰 돛단배가 곱게 밀려서 오면 / 내가 바라는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 청포(靑袍)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니 / 내 그를 맞아 이 포도를 따 먹으면 / 두 손은 함뿍 적셔도 좋으련 / 아이야, 우리 식탁엔 은쟁반에 / 하이얀 모시 수건을 마련해 두렴

**경북 칠곡 출신의 독립운동가 장진홍(1895~1930)은 이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후 1930년 7월 옥중에서 자결, 순국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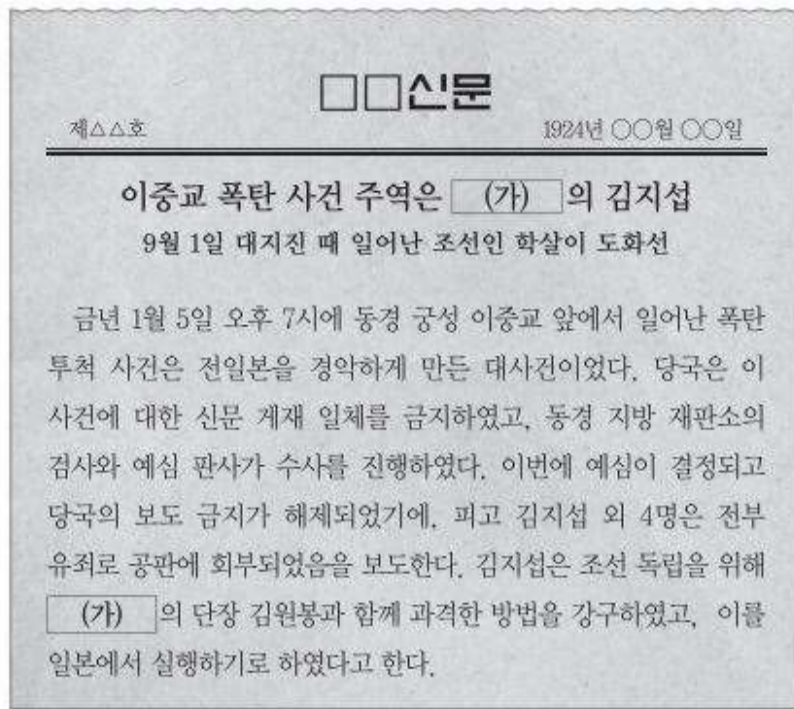
오답 해설>

- ① 소설 상록수를 신문에 연재한 인물은 심훈(1901~1936)이다. 상록수는 1935년 동아일보에 연재된 심훈의 장편소설로, 동아일보 창간 15주년 기념 소설 현상에 당선된 작품이다. 심훈은 1919년 3·1 운동에 참여하였던 당시의 감격을 되살려 저항시 '그날이 오면'을 지은 인물이기도 하다. 시집(표제작 '그날이 오면')을 1932년에 간행하려고 하였으나 조선 총독부의 검열 때문에 좌절되었고, 심훈 사후인 1949년에 가서야 유고집으로 간행되었다.
- ③ 타이완에서 일본 육군 대장을 저격***한 인물은 조명하 의사(1905~1928)이다(1928.5). 여기서 일본 육군 대장은 육군 특별검열사 구니노미야 구니요시(1873~1929)로 일본 왕 히로히토(裕仁)의 장인이며 군사 참의관이였다. 이때의 부상으로 구니노미야는 이듬해 1월에 죽었다. ***독약을 묻힌 단검으로 구니노미야를 향해 던졌다.
- ④ 삼균주의를 바탕으로 한 건국 강령을 만든 인물은 조소앙(1887~1958)이다. 조소앙은 정치·경제·교육의 균등을 강조한 삼균주의를 제창하였다. 대한민국 건국 강령이 (임시 정부 공보를 통해) 발표된 것은 1941년 11월의 일이다(1941.11.28).
- ⑤ 여유당전서를 간행하고 조선학 운동을 전개한 (대표적인) 인물은 위당 정인보(1893~1950)와 민세 안재홍(1891~1965)이다(1934~1938).

41 - 의열단

41. (가)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김구가 상하이에서 조직하였다.
- ② 비밀 행정 조직인 연통제를 운영하였다.
- ③ 조선 혁명 선언을 활동 지침으로 삼았다.
- ④ 신흥 무관 학교를 세워 무장 투쟁을 준비하였다.
- ⑤ 조선 총독부에 국권 반환 요구서를 제출하려 하였다.

정답> ③

'이중교 폭탄 사건 주역은 (가)의 김지섭(9월 1일 대지진 때 일어난 조선인 학살이 도화선)'라는 제목 아래 '금년 1월 5일 오후 7시에 동경 궁성 이중교 앞에서 일어난 폭탄 투척 사건은 전일본을 경악하게 만든 대사건이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당국은 이 사건에 대한 신문 게재 일체를 금지하였고, 동경 지방 재판소의 검사와 예심 판사가 수사를 진행하였다. 이번에 예심이 결정되고 당국의 보도 금지가 해제되었기에, 피고 김지섭 외 4명은 전부 유죄로 공판에 회부되었음을 보도한다. 김지섭은 조선 독립을 위해 (가)의 단장 김원봉과 함께 과격한 방법을 강구하였고, 이를 일본에서 실행하기로 하였다고 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의열단원인 김지섭(1884~1928)이 일본 도쿄 궁성[황성] 이중교(일본어로는 '니쥬바시')에 투폭한 것은 1924년 1월 5일의 일이다(원래는 제국 의회 투폭을 계획하였으나 휴회하는 바람에 변경).

1919년 11월 만주 지린성에서 조직된 의열단은 (민중의 직접 혁명을 주장하는) 조선 혁명 선언을 활동 지침으로 삼았다. 단재 신채호(1880~1936)에 의해 작성된 조선 혁명 선언은 중국 상하이에서 발표되었다(192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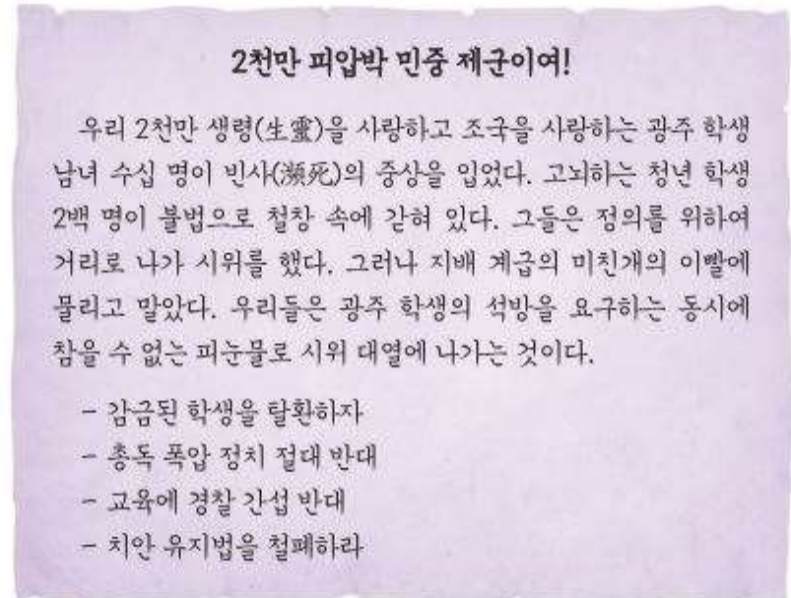
오답 해설>

- ① 백범 김구(1876~1949)가 중국 상하이에서 조직한 단체는 한인 애국단이다(1931.10).
- ② (국내) 비밀 행정 조직인 연통제를 운영한 단체는 대한민국 임시 정부이다(1919.7.10, 국무령 제1호).
- ④ 신흥 무관 학교를 세워 무장 투쟁을 준비한 이들은 서간도[남만주] 지역으로 망명한 신민회 계통의 애국지사들이다(이회영, 이상룡 등). 이들은 남만주 삼원보에 경학사와 신흥 강습소를 세워 무장 독립 투쟁의 토대를 마련하였다(각1911.4/1911.6). 신흥 강습소가 이후 1919년 5월에 신흥 무관 학교로 개명하였다.
- ⑤ 조선 총독부에 국권 반환 요구서를 제출하려 한 단체는 돈헌 임병찬(1851~1916)이 고종의 밀지를 받아 조직한 (대한)독립 의군부이다(1912.9~1913.5).

42 - 광주 학생 항일 운동

42. 다음 자료에 나타난 민족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순종의 장례일을 맞아 가두시위를 벌였다.
- ② 대한민국 임시 정부 수립에 영향을 주었다.
- ③ 조선 사람 조선 것이라는 구호를 내세웠다.
- ④ 신간회의 지원을 받으며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 ⑤ 일본, 프랑스 등의 노동 단체로부터 격려 전문을 받았다.

정답> ④

'2천만 피압박 민중 제군이여!'라는 제목 아래 '우리 2천만 생명(生靈)을 사랑하고 조국을 사랑하는 광주 학생 남녀 수십 명이 빈사(瀕死)의 중상을 입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고뇌하는 청년 학생 2백 명이 불법으로 철장 속에 갇혀 있다. 그들은 정의를 위하여 거리로 나가 시위를 했다. 그러나 지배 계급의 미친개의 이빨에 물리고 말았다. 우리들은 광주 학생의 석방을 요구하는 동시에 참을 수 없는 피눈물로 시위 대열에 나가는 것이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마지막으로 '감금된 학생을 탈환하자', '총독 폭압 정치 절대 반대', '교육에 경찰 간섭 반대', '치안 유지법을 철폐하라'는 요구 사항이 차례로 제시되어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는 1929년 11월에 발생한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을 가리키는 것임을 알 수 있다(~1930.3).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일어나자 신간회 중앙 본부는 진상 조사단을 파견하여 지원하였다(1929.11). 그리고 신간회 중앙 본부에서는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을 계기로 삼아 언론 및 종교 세력, 청년 및 노동 단체 등과 함께 대규모의 민중 대회를 준비하였으나 일제 경찰에 발각되어 조병옥, 이관용, 허헌 등 다수의 간부들이 체포되었다(1929.12.13, 이른바 '민중 대회 사건').

오답 해설>

- ① 순종의 장례일(인산일)을 맞아 가두시위를 벌인 민족 운동은 6·10 만세 운동이다(1926.6).
- ② 대한민국 임시 정부 수립에 영향을 준 민족 운동은 3·1 운동이다(1919.3.1).
- ③ 조선 사람 조선 것이라는 구호를 내세운 민족 운동은 물산 장려 운동이다(1920.8). 물산 장려 운동은 일본산 물산의 수입 공세에 대비해 우리(조선) 민족의 경제적 자립성을 지키려는 운동으로 관세령이 폐지된 1923년 4월 이후 더욱 확산되었다(1912년 4월 시행).
- ⑤ 일본, 프랑스 등의 노동 단체로부터 격려 전문을 받은 민족 운동은 원산 총파업이다(1929.1.13.~4.6).


43 - 일제 강점기 말의 사실

43.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조선 민사령 중 개정의 건
(제령 제19호)

조선인 호주는 본령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새로 씨(氏)를 정하고 이를 부운 또는 읍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 신고를 하지 않을 때는 본령 시행 당시 호주의 성을 씨로 삼는다.

일제는 조선 민사령을 개정하여 일본식 씨명을 사용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이렇게 개정된 이후에 일제가 추진한 정책에 대해 말해 볼까요?



- ① 통감부를 설치하였습니다.
- ② 조선 태형령을 시행하였습니다.
- ③ 헌병 경찰제를 실시하였습니다.
- ④ 여자 정신 근로령을 공포하였습니다.
- ⑤ 동양 척식 주식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정답> ④

'일제는 조선 민사령을 개정하여 일본식 씨명을 사용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이렇게 개정된 이후에 일제가 추진한 정책에 대해 말해 볼까요?'라는 질문이 나와 있다. 이어 '조선 민사령 중 개정의 건(제령 제19호)'으로 '조선인 호주는 본령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새로 씨(氏)를 정하고 이를 부운 또는 읍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 신고를 하지 않을 때는 본령 시행 당시 호주의 성을 씨로 삼는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일제 강점기 말에 일제에 의해 강요된 창씨개명(創氏改名)과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다. 1939년 11월에 공포되어 1940년 2월 11일부터 실시된 <조선 민사령 중 개정의 건>(제령 제19호)과 함께 <조선인의 씨명(氏名)에 관한 건>(제령 제20호)이 그것으로, 전자는 조선인에게 종래의 '성(姓)' 대신에 일본의 가족법상의 제도인 '씨(氏)'를 새로이 만든다고 하는 '창씨'의 내용을, 후자에서는 새로이 만들어진 '씨'와 종래의 '명(名)'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변경을 허가한다고 하는 '개씨(改氏)·개명(改名)'의 내용을 규정하였다. 창씨개명은 내선일체론에 입각하여 단순히 '성'을 '씨'로 바꾸고 조선인의 이름을 일본식으로 고치는 가족 제도의 동화 정책·호칭의 동화 정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조선인들이 가장 중시하는 혈통의 관념을 상대적인 것으로 격하시키고, 더 나아가 혈족·씨족·민족의 관념까지 말살하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었다.

(한국인 여성을 강제 동원한) 여자 정신 근로령이 공포된 것은 1944년 8월의 일이다(1944.8.22)(일양 칙령 제519호).

오답 해설>

- ① (제2차 한일 협약, 즉 을사늑약에 의해) 통감부가 설치된 것은 1906년 2월의 일이다(1906.2.1).
- ② (조선인에게만 적용된) 조선 태형령이 시행된 것은 1912년 4월부터의 일이다(~1920.3).
- ③ (일제가) 헌병 경찰제*를 실시한 것은 1910년대이다. 일제는 1910년대 내내 헌병 경찰을 기반으로 한 무단 통치 정책을 펼쳤다.
*헌병 경찰제: 일제는 1910년 한일 강제 병탄 직후부터 헌병 경찰제를 시행하였다(~1919년 3·1 운동이 발생할 때까지 실시, '무단 통치기'). 하지만 법령상으로 헌병 경찰제는 이미 강제 병탄 이전에 도입되었다. 1907년 10월 '한국 주차(駐節) 헌병에 관한 건'을 통하여 한국에 주둔하는 헌병이 치안 유지에 관한 경찰 업무까지 장악하도록 규정하였다. 병탄 직전에는 한국주차군 헌병사령관이 경무총감을 겸임하게 하고, 1910년 6월 29일 '통감부 경찰관서 관제'를 공포하여 헌병 조직과 경찰 조직을 완전히 통합하면서 헌병 경찰제가 확립되었다. 이러한 제도는 조선 총독부로 이어져 헌병 경찰은 일제 무단 통치의 핵심 조직이 되었다.
- ⑤ 동양 척식 주식회사가 설립된 것은 1908년 12월의 일이다(1945년 8월 일제 패망까지 지속). 동양 척식 주식회사는 대한 제국의 토지와 자원을 수탈할 목적으로 설치된 식민지 착취 기관이다.

44 - 몽양 여운형

44.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2점]

항복 전에 정무총감 엔도 등이 법과 질서를 유지하고 일본인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가)와/과 논의하였다. …… 일본인들은 그가 유혈 사태를 막아줄 수 있다고 믿었던 것 같다. …… 그런데 (가)은/는 조선 총독부가 생각했던 바를 따르지 않았다. 일본이 원했던 것은 연합군이 올 때까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평화 유지 위원회 정도였다. 그러나 그는 실질적인 정부로 여겨질 수 있는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를 만들었다.

- ① 샌프란시스코에서 흥사단을 결성하였다.
- ② 조선어 학회 사건으로 구속되어 옥고를 치렀다.
- ③ 김규식과 함께 좌우 합작 위원회를 조직하였다.
- ④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에서 활동하였다.
- ⑤ 미국에서 귀국하여 독립 촉성 중앙 협의회를 이끌었다.

정답> ③

'항복 전에 정무총감 엔도 등이 법과 질서를 유지하고 일본인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가)와/과 논의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일본인들은 그가 유혈 사태를 막아줄 수 있다고 믿었던 것 같다. …… 그런데 (가)은/는 조선 총독부가 생각했던 바를 따르지 않았다. 일본이 원했던 것은 연합군이 올 때까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평화 유지 위원회 정도였다. 그러나 그는 실질적인 정부로 여겨질 수 있는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를 만들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가) 인물'은 몽양 여운형(1886~1947)을 가리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여운형이 우사 김규식(1881~1950)과 함께 좌우 합작 위원회를 조직한 것은 1946년 7월의 일이다(1946.7.25)(~1947.10.6). 좌우 합작 위원회는 조직 당시 미군정의 지지와 후원을 받았다. 참고로 같은 해 10월 7일에 좌우 합작 7원칙이 발표되었다.

오답 해설>

- ① 샌프란시스코에서 흥사단을 결성한 인물은 도산 안창호(1878~1938)이다(1913.5).
- ② 일제에 의해 조작된 조선어 학회 사건이 발생한 것은 1942년 10월의 일이다. 1945년 1월에 최종 선고가 내려졌는데, 공판에 넘어간 12명 중 무죄와 집행유예가 선고된 7명은 석방되고, 5명은 다시 수감 생활에 들어갔다. 5인 중 정태진은 같은 해 7월에 출옥하고 나머지 4인(이극로, 최현배, 이희승, 정인승)은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하였으나 8·15 광복을 이틀 앞둔 8월 13일 기각되었다. 이들 4인은 8월 17일에 출소하였다.
- ④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반민특위)가 설치된 것은 이승만 정부 시기인 1948년 10월의 일이다(1948.10.23)*. 이듬해인 1949년 1월 5일 중앙청 205호실에 사무실을 차리고, 8일 친일 기업인이었던 박흥식(1903~1994)을 체포함으로써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1949.8.31).
*반민특위의 활동을 주도할 조사 위원은 각 도에서 1명씩 호선된 10명의 국회 의원으로 구성되었다. 김상돈(서울), 조중현(경기), 박우경(충북), 김명동(충남), 오기열(전북), 김준연(전남), 김상덕(경북), 김효석(경남), 이종순(강원), 김경배(황해, 제주)가 조사 위원으로 선출되었으며, 김상덕과 김상돈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 ⑤ 미국에서 귀국하여 독립 촉성 중앙 협의회를 이끈 인물은 우남 이승만(1875~1965)이다(1945.10.23).

45 - 6·25 전쟁

45. (가)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점]



- <보기> —
- ㄱ. 애치슨 라인이 발표되었다.
 - ㄴ. 인천 상륙 작전이 전개되었다.
 - ㄷ. 부산에서 발췌 개헌안이 통과되었다.
 - ㄹ.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가 개최되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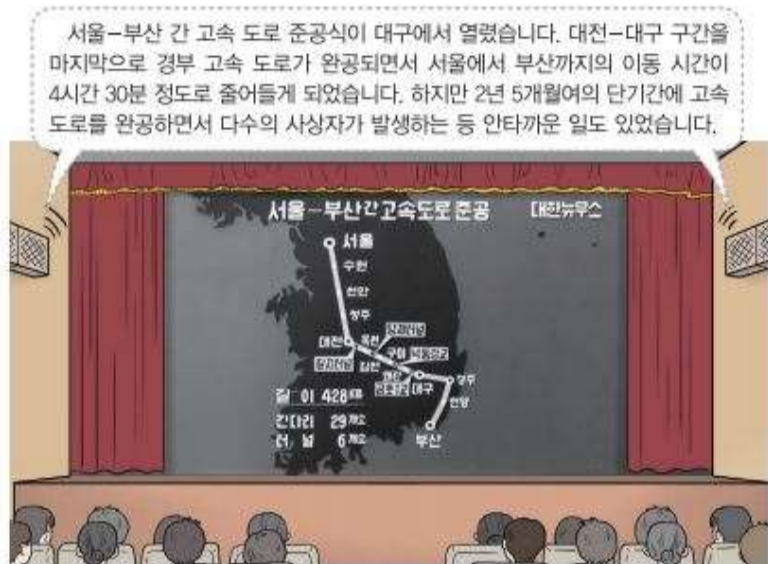
'사진으로 보는 (가)'라는 제목 아래 왼쪽 말풍선에 '이 사진은 (가) 당시 끊어진 대동강 철교를 찍은 거란다. 유엔군은 중국군의 남하를 지연시키기 위해 철교를 파괴했다는구나'는 말이 나와 있다. 이어 오른쪽 말풍선에는 '한파가 몰아치는 한겨울에 끊어진 다리를 건너는 피난민의 모습을 보니 전쟁의 참혹함이 생생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라는 말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가)'는 1950년에 일어난 6·25 전쟁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주어진 사진은 중국군[중공군]의 참전으로 유엔군이 밀려 철수하는 과정에서 평양의 대동강 철교 위 피난민들의 모습을 찍은 것이다(1950.12.3).

- ㄱ. (미국의 극동 방위선이 조정된) 애치슨 라인이 발표된 것은 1950년 1월의 일이다(1950.1.12). 당시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애치슨(1893~1971)이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행한 연설에서 미국의 극동[태평양] 방위선을 '알류산 열도-일본-오키나와-필리핀'으로 연결되는 라인(이른바 '애치슨 라인')이라고 밝혔다.
- ㄴ. 인천 상륙 작전이 전개된 것은 1950년 9월 15일의 일이다.
- ㄷ. (비상계엄이 선포된 가운데) 부산에서 발췌 개헌안(제1차 개헌안)이 통과된 것은 1952년 7월의 일이다(1952.7.4).
- ㄹ. (전후 처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소련의 수도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것은 1945년 12월의 일이다(12.16~25). 미국 국무장관 번즈, 소련 외무장관 몰로토프, 영국 외무장관 베빈 등이 참석하였다. 모스크바 3국[삼국] 외상 회의 결정문이 최종 채택된 것은 영국의 막후 동의를 얻은 12월 28일의 일이다.

이상의 <보기>에서 6·25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은, 'ㄴ과 ㄷ'이다

46 - 박정희 정부 시기의 경제 상황

46. 다음 뉴스가 보도된 정부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제2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되었다.
- ② 미국의 경제 원조로 삼백 산업이 발달하였다.
- ③ 귀속 재산 처리를 위해 신한 공사가 설립되었다.
- ④ 대통령 긴급 명령으로 금융 실명제가 실시되었다.
- ⑤ 최저 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 임금 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정답> ①

'서울-부산 간 고속 도로 준공식이 대구에서 열렸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대전-대구 구간을 마지막으로 경부 고속 도로가 완공되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이동 시간이 4시간 30분 정도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2년 5개월여의 단기간에 고속 도로를 완공하면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또 주어진 지도에는 서울-부산 간 고속 도로와 관련된 주요 구간과 자료가 표시되어 있다. 경부 고속 도로가 개통된 것은 박정희 정부 시기인 1970년 7월의 일이다(1970.7.7, 착공한 것은 1968년 2월 1일).

제2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된 것은 박정희 정부 시기인 1967년에서 1971년까지이다.

오답 해설>

- ② 미국의 경제 원조로 (원조 물자를 가공한) 삼백 산업이 발달한 것은 이승만 정부 시기인 1950년대의 일이다(구체적으로는 6·25 전쟁 이후인 1950년대 중후반).
- ③ 귀속 재산 처리를 위해 신한 공사가 설립된 것은 미군정기인 1946년 3월의 일이다(1946.3.3~1948.3.22).
- ④ 대통령 긴급 명령으로 금융 실명제가 실시된 것은 김영삼 정부 시기인 1993년 8월의 일이다(1993.8.12).
- ⑤ 최저 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 임금 위원회가 설치된 것은 전두환 정부 시기인 1987년 7월의 일이다(1987.7.30).

47 - 외환 위기

47. 다음 발표가 있었던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2점]

정부는 최근 겪고 있는 금융·외환 시장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국제 통화 기금(IMF)에 유동성 조절 자금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유동성 부족 상태가 조속한 시일 안에 해결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부는 국제 통화 기금과 참여국의 지원과 함께 우리 스스로도 원활한 외화 조달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함께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949	1965	1977	1988	1998	2007
(가)	(나)	(다)	(라)	(마)	
농지 개혁법 제정	한일 기본 조약 체결	100억 달러 수출 달성	서울 올림픽 개최	노사정 위원회 구성	한미 자유 무역 협정(FTA) 체결

-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⑤ (마)

정답> ④

'정부는 최근 겪고 있는 금융·외환 시장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국제 통화 기금(IMF)에 유동성 조절 자금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유동성 부족 사태가 조속한 시일 안에 해결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부는 국제 통화 기금과 참여국의 지원과 함께 우리 스스로도 원활한 외화 조달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함께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우리나라가 (파산을 막기 위하여) 국제 통화 기금(IMF)에 구제 금융을 신청한다고 발표한 것은 김영삼 정부 말기인 1997년 11월의 일이다(1997.11.21)('IMF 구제 금융 사태')(같은 해 12월 3일에 IMF와 양해 각서 체결). 참고로 정부 과천 종합 청사에서 구제 금융을 요청하겠다고 발표한 인물은 임창렬(1944~) 당시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이었다. 그리고 김대중 정부 시기인 2001년 8월에 우리나라는 국제 통화 기금(IMF)의 구제 금융을 조기 상환하였다(2001.8.23).

연표에서는 서울 올림픽이 개최된 1988년과 노사정 위원회가 구성된 1998년 사이인 '(라) 시기'에 해당한다(각 1988.9/1998.1).

48 - 강원도 강릉(오죽헌)

48.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저는 지금 ○○시에 있는 경포대에 와 있습니다. 관동팔경 중 하나인 경포대 안에는 숙종이 직접 지은 시를 비롯하여 많은 명사의 글이 걸려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가 볼 만한 곳을 대화창에 올려 주세요.



- ① 율곡 이이가 태어난 오죽헌을 추천해요.
- ② 무령왕릉이 있는 송산리 고분군을 추천해요.
- ③ 어재연 부대가 항전했던 광성보에 가 보세요.
- ④ 팔만대장경판이 보관된 해인사를 방문해 보세요.
- ⑤ 삼별초가 활동한 향파두리 향몽 유적에 가 보세요.

정답> ①

'저는 지금 ○○시에 있는 경포대에 와 있습니다. 관동팔경 중 하나인 경포대 안에는 숙종이 직접 지은 시를 비롯하여 많은 명사의 글이 걸려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가 볼 만한 곳을 대화창에 올려 주세요'라는 질문이 나와 있다. 이어 대화창에는 '양반의 주거 생활을 볼 수 있는 선교장을 추천해요'와 '보물로 지정된 승탑과 당간지주*가 있는 굴산사지**는 어때요?'라는 답글이 차례로 제시되어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시'는 강원도의 강릉시를 가리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고려 시대의 누각인 경포대는 강원도 강릉시 경포로(보물 제2046호)에, (전통 가옥인) 선교장은 강릉시 운정동에 위치해 있다(국가민속문화재 제5호). 강릉 굴산사지는 강릉시 구정면 학산리에 위치해 있다(사적 제448호).

*당간지주: 당(幢)을 거는 깃대인 당간을 걸어 두기 위하여 세운 돌기둥. 여기서 당(幢)은 부처나 보살의 위신과 공덕을 표시하는 장엄 불구 중 하나로, 커다란 불화(불교 그림)를 그린 기를 가리킨다. 또 당간은 불교에서 설법이나 법회 중임을 표시하기 위해 사찰 앞에 세우는 깃대로, 당을 달아 두는 기둥이라는 의미로 당간이라고 부른다.

**굴산사: 신라 문성왕 9년인 847년에 선승인 통효대사 범일(810~889)이 창건한 사찰. 범일은 구산선문 중 하나인 사굴산파를 개창한 승려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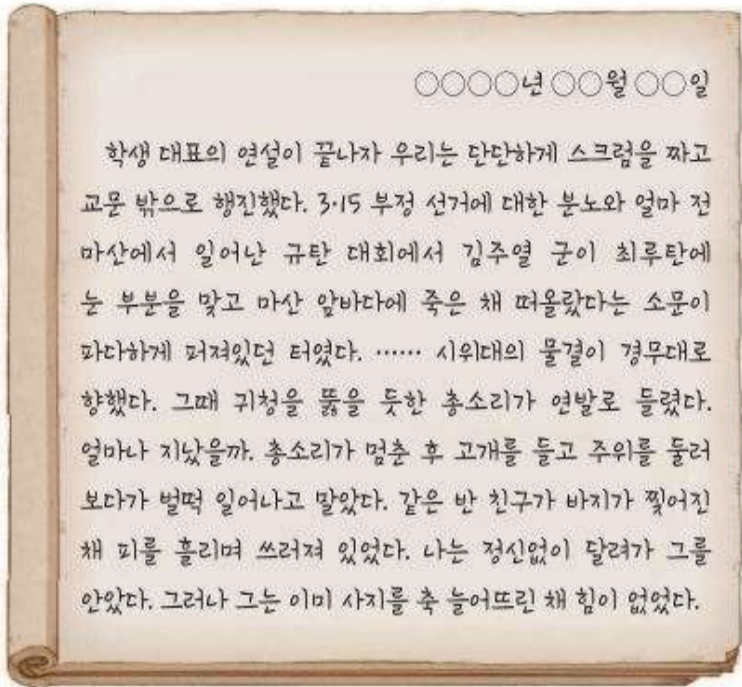
오죽헌은 율곡 이이(1536~1584)가 태어난 곳으로, 강릉시 죽헌동에 위치해 있다(보물 제165호).

오답 해설>

- ② 무령왕릉이 있는 송산리 고분군이 위치한 곳은 충남 공주이다.
- ③ 어재연 부대가 항전했던 광성보가 위치한 곳은 강화도이다. 광성보는 강화 해협을 지켰던 강화 12진보[요새지]의 하나로 총사령부가 있었다.
- ④ 팔만대장경판이 보관된 해인사가 위치한 곳은 경남 합천(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가야산 중턱)이다.
- ⑤ 삼별초가 활동한 향파두리 향몽 유적이 위치한 곳은 제주도(제주시 애월읍, 사적 제396호)이다.

49 - 4·19 혁명

49. 다음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점]



- ① 시민군이 조직되어 계엄군에 저항하였다.
- ② 당시 대통령이 해야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 ③ 호헌 철폐, 독재 타도 등의 구호를 내세웠다.
- ④ 3선 개헌 반대 범국민 투쟁 위원회가 주도하였다.
- ⑤ 장기 독재를 비판하는 3·1 민주 구국 선언이 발표되었다.

정답> ②

'학생 대표의 연설이 끝나자 우리는 단단하게 스크럼을 짜고 교문 밖으로 행진했다. 3·15 부정 선거에 대한 분노와 얼마 전 마산에서 일어난 규탄 대회에서 김주열 군이 최루탄에 눈 부분을 맞고 마산 앞바다에 죽은 채 떠올랐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있던 터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시위대의 물결이 경무대로 향했다. 그때 귀청을 뚫을 듯한 총소리가 연발로 들렸다. 얼마나 지났을까. 총소리가 멈춘 후 고개를 들고 주위를 둘러보다가 벌떡 일어나고 말았다. 같은 반 친구가 바지가 찢어진 채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다. 나는 정신없이 달려가 그를 안았다. 그러나 그는 이미 사지를 축 늘어뜨린 채 힘이 없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3·15 부정 선거', '경무대', '김주열' 등의 표현을 통해 주어진 자료는 1960년의 4·19 혁명 당시의 상황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해야하는 결과를 가져온 민주화 운동은 1960년의 4·19 혁명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4월 26일에 하야를 표명하고 다음날인 27일에 사임서를 제출한 후 경무대를 떠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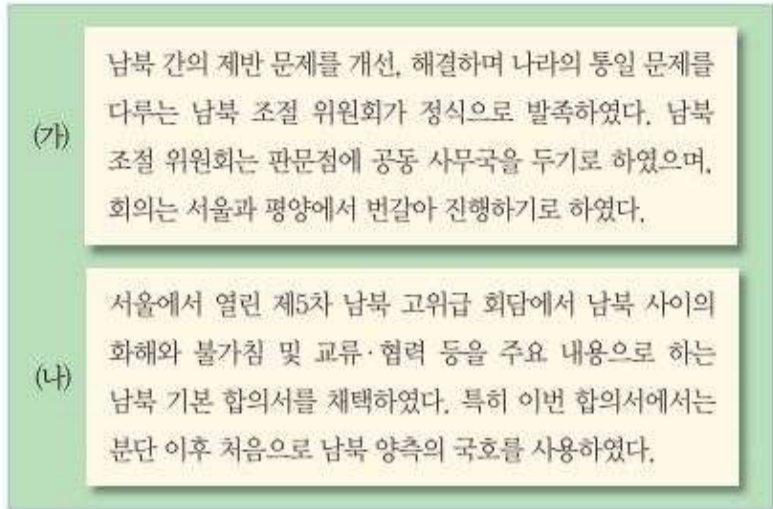
오답 해설>

- ① 시민군이 조직되어 계엄군에 저항한 민주화 운동은 1980년의 5·18 민주화 운동이다(1980.5.18~27). 구체적으로는 1980년 5월 21일 정오 경 광주 도청 앞에서 계엄군이 시위대에 조준 사격을 가하였고 이에 맞서 시민들이 광주 인근 시외 지역에서 탈취한 무기로 오후 3시경부터 계엄군과 시가전을 벌였다(이로써 시민 봉기가 무력 항쟁으로 전환).
- ③ 호헌 철폐, 독재 타도 등의 구호를 내세웠던 민주화 운동은 1987년의 6월 민주 항쟁이다.
- ④ 3선 개헌 반대 범국민 투쟁 위원회가 주도한 민주화 운동은 1969년의 3선 개헌 반대 시위(투쟁)이다. 3선 개헌 반대 범국민 투쟁 위원회가 발기한 것은 1969년 7월이고(1969.7.17), (박정희) 대통령의 3선 연임을 허용하는 개헌안이 통과된 것은 1969년 9월의 일이다(1969.9.14).* 3선 개헌 반대 범국민 투쟁 위원회에는 당시 야당인 신민당 국회 의원과 정치 활동 정화법 해금인사, 재야인사, 각계 인사 등 총 329명이 참여하였다(위원장 김재준).

<27쪽 31번 아래 추가 해설>

50 - 남북 이산가족 고향 방문

50. (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3점]



- ① 금강산 육로 관광이 시작되었다.
- ② 6·15 남북 공동 선언이 발표되었다.
- ③ 평창 동계 올림픽에 남북 단일팀이 참가하였다.
- ④ 남북 경제 협력을 위한 개성 공업 지구가 조성되었다.
- ⑤ 남북 이산가족 고향 방문단의 교환 방문이 최초로 성사되었다.

정답> ⑤

(가)에 '남북 간의 제반 문제를 개선, 해결하며 나라의 통일 문제를 다루는 남북 조절 위원회가 정식으로 발족하였다. 남북 조절 위원회는 판문점에 공동 사무국을 두기로 하였으며, 회의는 서울과 평양에서 번갈아 진행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1972년 7월에 발표된 7·4 남북 공동 성명을 실천하기 위해 남북 조절 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박정희 정부 시기인 1972년 11월의 일이다(1972.11.30). 이후 남한은 비정치 분야 교류부터 해나가자고 제안하였으나, 북한이 이를 거부하고 군사 대표자 회담부터 개최할 것을 주장해 평행선을 달리다 1973년 8월 북한이 김대중 납치 사건을 구실로 일방적으로 대화 중단을 선언하였다(1973.8.28).

(나)에는 '서울에서 열린 제5차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남북 기본 합의를 채택하였다. 특히 이번 합의서에서는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 양측의 국호를 사용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즉 '남북 기본 합의서'를 채택한 것은 노태우 정부 시기인 1991년 12월의 일이다(1991.12.13).

남북 이산가족의 고향 방문단의 교환 방문이 최초로 성사된 것은 전두환 정부 시기인 1985년 9월의 일이다(1985.9.20~23). 당시 남북 간 50명 규모였으며, 9월 21일과 22일 양일에 걸쳐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졌다. 이때 예술 공연단도 (남북으로) 교환되어 공연하였다.

오답 해설>

- ① 금강산 육로 관광이 시작된 것은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3년 9월부터이다. 이로써 김대중 정부 시기부터 있었던 금강산 해로 관광은 2004년 1월에 중단되었다(김대중 정부 시기 첫해인 1998년 11월 19일부터 금강산 해로 관광 시작, 이때 금강호가 동해항에서 북한의 장전항을 향해 처음 출항).
- ② 6·15 남북 공동 선언이 발표된 것은 김대중 정부 시기인 2000년 6월의 일이다(2000.6.15).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2000년 6월 13일에 평양을 방문한 뒤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1942~2011)과의 협의를 거쳐 6월 15일에 남북 공동 선언을 채택하여 발표하였다(2000.6.15)(5개 조항으로 구성).
- ③ 제23회 평창 동계 올림픽에 남북 단일팀이 참가한 것은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8년 2월의 일이다(2018.2.9~2.25)(여자 아이스하키 종목).
- ④ 남북 경제 협력을 위한 개성 공업 지구가 조성된 것은 노무현 정부 시기의 일이다. 김대중 정부 시기인 2000년 6월 제1차 남북 정상 회담 이후 남북 간 교류가 활발해져 같은 해인 2000년 8월 한국의 현대아산

(주)과 북한 사이에 공업지구 건설이 합의되었고(2000.8.29), 2002년 8월에 개성공단 착공 추진이 최종 합의되었다. 이어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3년 6월에 이르러 개성공단 착공식이 비로소 거행되었다(2003.6.30). 2004년 6월에는 시범단지 부지 조성을 완료했으며 같은 해 10월에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사무소'가 개소하였다. 2004년 12월에 이르러 시범단지 분양 기업에서 생산된 제품의 첫 반출이 이루어졌다(노무현 정부 시기, 2003.2-2008.2).

<49번 오답 해설>

*1969년 9월 14일 일요일 새벽 2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점거 농성을 하고 있던 야당(신민회) 의원들을 피하여 국회 제3별관에서 여당계 의원 122명이 모여 기명 투표 방식으로 투표하여 찬성 122표, 반대 0표로 (3선) 개헌안을 변칙 통과시켰다. 그 후 개헌안은 10월 17일 국민 투표에서 총유권자의 77.1% 참여에 65.1% 찬성을 얻어 확정되었으며, 10월 21일에 공포 및 시행되었다.

⑤ 장기 독재를 비판하는 3·1 민주 구국 선언이 발표된 것은 박정희 정부 시기인 1976년 3월의 일이다(1976.3.1). 서울 명동 성당에서 윤보선, 김대중, 문익환, 김승훈, 함석헌, 함세웅, 안병무 등 각계 지도층 재야인사들이 발표한 선언으로, 선언문에서 긴급 조치 철폐, 민주 인사 석방, 의회 정치 회복, 대통령 직선제 요구, 사법권 독립 등과 함께 박정희 정권 퇴진을 요구하였다. '3·1 민주 구국 선언 사건' 또는 '명동 사건'이라고도 한다.

- 이 상 -